

고 정 민 교수지도
석사학위 청구논문

원어민 영어교사와
비원어민 영어교사의 인식비교

- 교수행동, 교수영역 및 교수방법을 중심으로 -

2007

성신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교육학과 영어교육전공

이 유 리

원어민 영어교사와 비원어민 영어교사의 인식비교

- 교수행동, 교수영역 및 교수방법을 중심으로 -

고 정 민 교수지도

이 논문을 석사학위논문으로 제출함

2007년 5월

성신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교육학과 영어교육전공

이 유 리

인 준 서

이유리의 석사학위 논문으로 인준함.

심사위원 고 정 민 인

심사위원 신 명 신 인

심사위원 정 소 우 인

성신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논문개요

1995년부터 원어민 영어교사 초빙 프로그램(EPIK; English Program in Korea)이 시작되어 공교육에서 원어민 영어교사를 활용한 수업이 본격적으로 실시되었으나 비효율적인 원어민 영어교사의 선발 및 관리, 원어민 영어교사의 자질 논란, 협동수업의 구체적인 활용 방법 부재 등의 이유로 원어민 영어교사 프로그램에 대한 문제점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본 연구에서는 원어민 영어교사와 비원어민 영어교사의 효율적인 영어수업을 위하여 두 영어교사 집단의 교수행동, 교수영역, 교수방법 전반에 대한 인식 비교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현장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는 원어민 영어교사와 비원어민 영어교사간의 이해도를 높임으로서 원어민과 비원어민 영어교사의 특성이 잘 반영된 효율적인 협동수업(Team-Teaching)을 실시하고, 원어민 영어교사의 장단점을 최대한 살린 원어민 영어교사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나아가 현 영어교육의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이와 같은 목적으로 서울시와 경기도 및 인근 시도의 중, 고등학교에 근무하고 있는 원어민 영어교사 76명과 비원어민 영어교사 137명을 연구대상으로 지정한 후 구조화된 설문지를 통해 자료를 수집하였다. 비원어민 영어교사의 경우는 원어민 영어교사가 재직하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로 나누어 분석하였으며 본 연구에서는 원어민 영어교사 집단을 그룹1, 원어민 영어교사와 같이 재직 중인 비원어민 영어교사 집단을 그룹2, 원어민 영어교사와 같이 재직 중이지 않은 비원어민 영어교사 집단을 그룹3 이라고 정의하였다.

본 연구의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원어민 영어교사와 비원어민 영어교사의 교수행동 특징 및 평가에서 그룹별로 주목할 만한 점이 발견되었다. 교수행동 특징 11가지 중 세 그룹 모두가 동의한 의견은 총 5가지로 원어민 영어교사는 수업을 흥미롭게 진행하고 다양한 교수방법을 사용하는 것을 선호하며, 비원어민 영어교사는 학생에게 점수를 줄 때 엄격한 편이고 시험을 많이 보며 숙제를 많이 내 준다는 것이었다. 한편, 그룹2와 그룹3 간에는 두 가지 특징을 제외하고는 비교적 비슷한 의견을 나타냈으며 대체적으로 그룹1과 나머지 그룹 간에 의견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교수행동에 대한 평가 항목 8가지 중에는 세 그룹 모두 50%이상 동의한 의견이 총 6가지인 것으로 집계되었으며 한국인 교사의 보조 없이 영어 초급자를 가르치기 힘들다는 의견과 원어민 영어교사의 수업이 우리나라의 학교 시험으로 평가하기에는 어려운 점이 있다는 의견에는 그룹1과 나머지 그룹 간에 의견차가 큰 것으로 조사되었다.

둘째, 원어민 영어교사와 비원어민 영어교사의 교수 영역별 특징 및 평가에서 그룹1과 나머지 그룹 간에 동일한 점과 상이한 점이 모두 발견되었으나 그룹2와 그룹3 간에는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교수영역 8가지 중 세 그룹 모두가 동의한 의견은 총 5가지로 원어민 영어교사는 말하기, 듣기, 발음, 영어권 문화의 영역을, 비원어민 영어교사는 문법 영역을 가르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응답하였으며 읽기, 어휘, 쓰기 영역은 그룹별로 다른 의견을 나타내었다. 한편 영역별 교수에 대하여 평가한 결과를 살펴보면 원어민 영어교사는 발음 영역이 가장 높게, 그 다음으로는 말하기, 영어권 문화, 듣기, 어휘, 쓰기, 읽기, 문법의 순서로 평가되었으며, 비원어민 영어교사는 문법 영역이 가장 높게, 그 다음으로는 읽기, 어휘, 듣기, 쓰기, 발음, 영어권문화, 말하기의 순서로 평가된 것으로 집계되었다.

마지막으로 교수방법에 대한 의견을 살펴보았을 때 이상적인 수업형태로는 그룹1의 경우 원어민과 비원어민 영어교사의 완벽한 협동수업을, 그룹2와 그룹3의 경우에는 단독수업과 부분적인 협동수업의 적절한 배합을 가장 많이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사용 중인 교수자료에 대한 의견으로는 비원어민 영어교사가 원어민 영어교사에 비해 교과서와 오디오 테이프의 사용이 많은 것으로 나타나 교수자료의 다양성 면에서 다채롭지 못한 것으로 집계되었다.

이외에도 원어민 영어교사제도 및 현 영어교육에 대한 의견을 위의 결과와 종합하여 다음과 같은 점을 제안 하고자 한다.

첫째, 원어민 영어교사와 비원어민 영어교사의 특성이 효과적으로 반영된 협동수업이 실시되어야 한다. 교수행동, 교수영역, 교수방법 면에서 상호 다른 특성을 가진 두 교사가 서로에 대한 인식을 바탕으로 역할 분담을 하여야 할 것이다. 예를 들어, 수업의 설계 단계에서 교육제도와 학생들의 수준을 잘 아는 비원어민 영어교사와 다양한 교수방법과 자료를 보유한 원어민 영어교사가 협동하고, 진행의 단계에서 영역별로 원어민 영어교사와 비원어민 영어교사의 특성을 고려하여 수업을 하며, 평가의 단계에서는 각자 본인이 평가한 학생들의 수준을 공유함으로써 공정한 결과를 이끌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좋은 본보기가 될 것이다.

둘째, 원어민 영어교사와 비원어민 영어교사가 바라는 원어민 영어교사제도가 확립되어야 한다. 원어민 영어교사의 선발에서부터 현장의 의견에 귀 기울여 선발 기준을 세우고, 원어민 영어교사에게 한국 교육에 대한 정보를 전달하고 정기적인 교육을 제공해야 한다. 또한 각 학교에 원어민 영어교사를 파견할 때 원어민 영어교사가 수업에 필요한 수업계획서나 커리큘럼의 예시를 제공하여 수업 진행시 어려움이 없도록 제도적으로 뒷받침 되어야 할 것이다.

목 차

논문개요

I. 서론	1
II. 연구의 배경 및 선행연구	3
1. 원어민 영어교사와 비원어민 영어교사	4
2. 한국의 원어민 영어교사제도	6
3. 협동수업(Team-Teaching)	11
III. 연구 방법	15
1. 연구 대상 및 연구 절차	15
1) 원어민 영어교사	15
2) 비원어민 영어교사	16
2. 설문지	17
3. 자료 분석	19
IV. 연구 결과 및 분석	20
1. 설문 참여자에 대한 배경조사	20
1) 원어민 영어교사	20
2) 비원어민 영어교사	22
2. 원어민 영어교사와 비원어민 영어교사에 대한 인식	24
1) 교수행동 특성	24
2) 효율적인 교수영역	37
3. 원어민 영어교사에 대한 평가	43
1) 교수행동 평가	43
2) 각 영역별 교수평가	50
4. 비원어민 영어교사에 대한 평가	57
1) 교수행동 평가	57

2) 각 영역별 교수평가	63
5. 원어민 영어교사와 비원어민 영어교사의 영어교수방법	70
1) 가장 중점을 두는 영어교수 영역	70
2) 영어교수의 형태 및 효과적인 수업 형태	71
3) 사용 중인 수업자료의 종류	72
4) 영어교수실력 및 영어실력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	74
6. 원어민 영어교사제도	75
1) 원어민 영어교사로서 겪는 문제점	75
2) 비원어민 영어교사의 수업에 미치는 영향	76
3) 원어민 영어교사의 배치	77
4) 이상적인 원어민 영어교사의 비율	78
7. 만족도 및 제안	80
1) 원어민 영어교사	80
2) 비원어민 영어교사	82
 V. 결론 및 제한점	 85

참 고 문 헌

ABSTRACT

부 록(설문지)

표 목 차

표 II-1. 원어민 영어교사와 비원어민 영어교사의 교수행동특성 비교	5
표 II-2. EPIK 고용등급별 자격 기준	8
표 II-3. 원어민 영어교사의 교육(행정)기관 배치 현황	10
표 III-1. 설문지 문항 영역 및 내용	18
표 IV-1. 원어민 영어교사 설문 참여자에 대한 배경조사	21
표 IV-2. 비원어민 영어교사 설문 참여자에 대한 배경조사	23
표 IV-3. 수업 준비 시 많은 시간을 투자하는 집단	25
표 IV-4. 수업지도안을 엄수하는 집단	25
표 IV-5. 학생 평가 시 엄격한 태도를 취하는 집단	26
표 IV-6. 시험을 많이 보는 집단	27
표 IV-7. 상황에 대한 즉각적인 대응능력이 좋은 집단	27
표 IV-8. 다양한 교수방법의 사용을 선호하는 집단	28
표 IV-9. 틀린 곳을 계속해서 지적하는 집단	29
표 IV-10. 수업을 흥미롭게 진행하는 집단	30
표 IV-11. 숙제를 많이 내주는 집단	31
표 IV-12. 학생들의 언어실력을 잘 평가할 수 있는 집단	32
표 IV-13. 학생들과의 관계가 돈독한 집단	32
표 IV-14. 원어민 영어교사와 비원어민 영어교사의 교수행동에 대한 인식	33
표 IV-15. 원어민 영어교사와 비원어민 영어교사의 교수행동에 대한 인식 (모든 그룹이 동의한 경우)	34
표 IV-16. 원어민 영어교사와 비원어민 영어교사의 교수행동에 대한 인식 (그룹2와 그룹3은 동의하지만 그룹1과는 상이한 경우)	34

표 IV-17. 원어민 영어교사와 비원어민 영어교사의 교수행동에 대한 인식 (그룹1과 그룹2는 동의하지만 그룹3과는 상이한 경우)	35
표 IV-18. 원어민 영어교사와 비원어민 영어교사의 교수행동에 대한 인식 (그룹2와 그룹3 간에 상이한 경우)	35
표 IV-19. 그룹1의 중, 고등학교간의 상이한 결과(소문항7)	36
표 IV-20. 그룹2의 중, 고등학교간의 상이한 결과(소문항6)	36
표 IV-21. 말하기 교수가 더욱 효율적인 집단	37
표 IV-22. 듣기 교수가 더욱 효율적인 집단	38
표 IV-23. 읽기 교수가 더욱 효율적인 집단	39
표 IV-24. 쓰기 교수가 더욱 효율적인 집단	40
표 IV-25. 문법 교수가 더욱 효율적인 집단	40
표 IV-26. 어휘 교수가 더욱 효율적인 집단	41
표 IV-27. 발음 교수가 더욱 효율적인 집단	41
표 IV-28. 영어권 문화 교수가 더욱 효율적인 집단	42
표 IV-29. 원어민 영어교사와 비원어민 영어교사의 효율적인 교수영역 ...	42
표 IV-30. 원어민 영어교사에 대한 교수행동 평가(소문항1)	44
표 IV-31. 원어민 영어교사에 대한 교수행동 평가(소문항2)	44
표 IV-32. 원어민 영어교사에 대한 교수행동 평가(소문항3)	45
표 IV-33. 원어민 영어교사에 대한 교수행동 평가(소문항4)	46
표 IV-34. 원어민 영어교사에 대한 교수행동 평가(소문항5)	46
표 IV-35. 원어민 영어교사에 대한 교수행동 평가(소문항6)	47
표 IV-36. 원어민 영어교사에 대한 교수행동 평가(소문항7)	48
표 IV-37. 원어민 영어교사에 대한 교수행동 평가(소문항8)	48

표 IV-38. 원어민 영어교사에 대한 교수행동 평가 (그룹1>그룹2, 그룹3 vs 그룹1<그룹2, 그룹3)	49
표 IV-39. 원어민 영어교사에 대한 교수행동 평가 (그룹2>그룹3 vs 그룹2<그룹3 vs 그룹2≒그룹3)	50
표 IV-40. 원어민 영어교사에 대한 말하기 영역 교수평가	51
표 IV-41. 원어민 영어교사에 대한 듣기 영역 교수평가	52
표 IV-42. 원어민 영어교사에 대한 읽기 영역 교수평가	52
표 IV-43. 원어민 영어교사에 대한 쓰기 영역 교수평가	53
표 IV-44. 원어민 영어교사에 대한 문법 영역 교수평가	54
표 IV-45. 원어민 영어교사에 대한 어휘 영역 교수평가	54
표 IV-46. 원어민 영어교사에 대한 발음 영역 교수평가	55
표 IV-47. 원어민 영어교사에 대한 영어권 문화 영역 교수평가	55
표 IV-48. 원어민 영어교사의 영역별 교수능력 평가(그룹별 영역 순위) ..	56
표 IV-49. 비원어민 영어교사에 대한 교수행동 평가(소문항1)	57
표 IV-50. 비원어민 영어교사에 대한 교수행동 평가(소문항2)	58
표 IV-51. 비원어민 영어교사에 대한 교수행동 평가(소문항3)	59
표 IV-52. 비원어민 영어교사에 대한 교수행동 평가(소문항4)	59
표 IV-53. 비원어민 영어교사에 대한 교수행동 평가(소문항5)	60
표 IV-54. 비원어민 영어교사에 대한 교수행동 평가(소문항6)	61
표 IV-55. 비원어민 영어교사에 대한 교수행동 평가(소문항7)	61
표 IV-56. 비원어민 영어교사에 대한 교수행동 평가(소문항8)	62
표 IV-57. 비원어민 영어교사에 대한 교수행동 평가 (그룹1>그룹2, 그룹3 vs 그룹1<그룹2, 그룹3)	62

표 IV-58. 비원어민 영어교사에 대한 교수행동 평가 (그룹2>그룹3 vs 그룹2<그룹3)	63
표 IV-59. 비원어민 영어교사에 대한 말하기 영역 교수평가	64
표 IV-60. 비원어민 영어교사에 대한 듣기 영역 교수평가	65
표 IV-61. 비원어민 영어교사에 대한 읽기 영역 교수평가	65
표 IV-62. 비원어민 영어교사에 대한 쓰기 영역 교수평가	66
표 IV-63. 비원어민 영어교사에 대한 문법 영역 교수평가	66
표 IV-64. 비원어민 영어교사에 대한 어휘 영역 교수평가	67
표 IV-65. 비원어민 영어교사에 대한 발음 영역 교수평가	67
표 IV-66. 비원어민 영어교사에 대한 영어권 문화 영역 교수평가	68
표 IV-67. 비원어민 영어교사의 영역별 교수능력 평가(그룹별 영역 순위) ..	69
표 IV-68. 그룹3의 중, 고등학교간의 상이한 결과(전 영역)69	
표 IV-69. 가장 중점을 두는 영어교수 영역(그룹별 영역 순위)	71
표 IV-70. 현재 진행 중인 수업 형태(그룹별)	72
표 IV-71. 효과적일 것으로 기대되는 수업 형태 (그룹별)	72
표 IV-72. 사용 중인 수업자료의 종류(그룹별)	73
표 IV-73. 영어교수실력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그룹1)	74
표 IV-74. 영어실력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그룹2, 그룹3)	74
표 IV-75. 원어민 영어교사로서 겪는 문제점(그룹1)	75
표 IV-76. 원어민 영어교사로서 겪는 문제점-기타의견(그룹1)	76
표 IV-77. 원어민 영어교사가 수업에 미치는 영향(그룹2, 그룹3)	77
표 IV-78. 원어민 영어교사의 배치에 대한 의견(그룹2, 그룹3)	78
표 IV-79. 실효성을 거두기 어렵다는 의견에 대한 이유(그룹2, 그룹3)	78
표 IV-80. 이상적인 원어민 영어교사의 비율(중학교)	79

표 IV-81. 이상적인 원어민 영어교사의 비율(고등학교)	79
표 IV-82. 원어민 영어교사로서의 만족도(그룹1)	80
표 IV-83. 비원어민 영어교사로서의 만족도(그룹2, 그룹3)	83

I. 서론

제6차 영어과 교육과정에서 의사소통능력 배양을 강조했던 것과 같은 맥락으로 1995년부터 원어민 영어교사 초빙 프로그램(EPIK; English Program in Korea)이 시작되었다. 이를 통해 공교육에서 원어민 영어교사를 활용한 수업이 본격적으로 실시되어 2006년 4월을 기준으로 전국적으로 초, 중, 고등학교 및 교육청, 연수원에 1,909명의 원어민 영어교사가 배치되어 비원어민 영어교사와의 협동수업(Team-Teaching)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비효율적인 원어민 영어교사의 선발 및 관리, 원어민 영어교사의 자질 논란, 협동수업의 구체적인 활용 방법 부재 등의 이유로 원어민 영어교사 프로그램에 대한 문제점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영어교육혁신방안 정책참고자료, 2006).

원어민 영어교사와 비원어민 영어교사에 대한 연구는 1990년대부터 Medyes와 Braine을 시작으로 본격적으로 이루어지기 시작했는데, 국외에서 이루어진 연구는 대부분 ESL 상황에서 원어민 영어교사와 비원어민 영어교사의 교수행동 및 인식 차이에 관한 고찰 위주로 진행되었으며, 우리나라와 같은 EFL 상황에서는 원어민 영어교사 프로그램의 활용(박기화, 1996; 김신혜, 박병권, 2002; 박약우, 2006), 원어민 영어교사와 비원어민 영어교사의 효과적인 협동수업(정길정, 민찬규, 박매란, 1999; 박정숙, 김대진, 2000; 나은진, 1997; 길인숙, 2004), 원어민 영어교사와 비원어민 영어교사의 교수행동 특징 및 인식(노승빈, 2006; 김신혜, 2005) 등의 주제로 주로 연구가 이루어져 왔다.

이에 비해 중, 고등학교에서 원어민 영어교사와 비원어민 영어교사가 자신

과 상대집단에 대한 인식을 동형(同型)의 질문을 통해 설문 조사한 연구는 거의 없었으며, 특히 비원어민 영어교사 중 원어민 영어교사가 재직 중인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의 인식 차이를 검토한 연구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다.

본 연구에서는 현장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는 원어민 영어교사와 비원어민 영어교사간의 이해도를 높임으로서 원어민과 비원어민 영어교사의 특성이 잘 반영된 효율적인 협동수업을 실시하고, 원어민 영어교사의 장단점을 최대한 살린 원어민 영어교사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나아가 현 영어교육의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서울시와 경기도 및 인근 시도의 중, 고등학교에 근무하고 있는 원어민 영어교사 76명과 비원어민 영어교사 137명을 대상으로 원어민 영어교사와 비원어민 영어교사의 교수행동, 교수영역 및 교수방법에 대한 인식을 각각 영어와 한글로 작성된 설문지를 통해 비교해 보고자 한다.

Ⅱ. 연구의 배경 및 선행연구

원어민 영어교사와 비원어민 영어교사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은 Medgyes(1994)와 Braine(1999)의 실험연구와 저서를 통하여 가시화되기 시작하였다. 1999년 TESOL에서 ‘non-Native English Speakers’ Causus’가 열리며 본 연구 분야는 급물살을 타기 시작했고, Medgyes의 선행적인 연구 이후 10여 년이 지난 지금 원어민 영어교사, 비원어민 영어교사에 관련된 연구는 다방면에서 이루어지고 있다(Llurda, 2005; Braine, 2005).

우리나라의 원어민 영어교사와 비원어민 영어교사에 대한 연구는 EPIK이 시작된 이후 본격적으로 이루어지기 시작하였고 원어민 영어교사제도, 협동수업, 원어민 영어교사와 비원어민 영어교사의 특성에 관련된 연구가 주를 이루었다. 원어민 영어교사제도에 관한 선행연구로는 박기화(1996)의 EPIK의 토대가 된 일본의 원어민 영어교사 프로그램(JET) 연구, 김신혜, 곽병권(2002)의 EPIK이 고등학교 영어교육에 미치는 영향 분석 연구, 박약우(2006)의 원어민 교사와 비원어민 교사의 역할 및 장단점에 관한 연구 등이 있다. 협동수업에 관해서는 정길정, 민찬규, 박매란(1999)과 박정숙, 김대진(2000)이 원어민 영어교사의 효과적 활용을 위해 협동수업의 현황 및 교육효과에 대하여 논하였으며, 나은진(1997)은 원어민 영어교사와 비원어민 영어교사의 역할 분담식 수업을 연구하였고, 길인숙(2004)은 원어민과의 협동수업이 학습자의 정의적 요인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였다. 원어민 영어교사와 비원어민 영어교사의 교수행동 특징 및 인식에 관한 연구로는 노승빈(2006)이 EFL환경에서 원어민 영어교사의 교수방법을, 김신혜(2005)는 비원어민 교사들의 영어교수학습에 대한 인식을 각각 설문조사를 통하여 살펴보았다.

1. 원어민 영어교사와 비원어민 영어교사

좋은 영어교사란 단순히 영어를 잘해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원어민 영어교사가 이상적이라는 관점이 지배적이던 1961년 당시 우간다에서 열린 Commonwealth Conference on the Teaching of English as a Second Language에서 영어 원어민이 이상적인 영어교사라는 내용의 Makarere Report가 선언되었다(Phillipson, 1992). 이는 곧 영어권 나라가 아닌 곳에서 사용되는 언어는 적절한 모델이 될 수 없으며, ESL이나 EFL 환경에서 영어를 배운 교사들은 학생들에게 영어를 가르칠 수 있는 충분한 자격을 가지고 있지 않음을 나타내지 않는 것과 같은 원리이다(Choe, 2005).

Phillipson(1992)은 이러한 관점에 대하여 다섯 가지 오류를 규정하였는데 이 중 본 연구와 관련된 두 가지 오류를 소개하고자 한다.

- The monolingual fallacy: English is best taught monolingually.
- The native speaker fallacy: The ideal teacher of English is a native speaker.

첫 번째 오류는 현지 언어를 고려하지 않은 채 영어만이 사회에서 올바른 문화를 형성하고 다른 언어들은 부적절한 문화를 형성한다는 가정을 하고 있는 것이고 두 번째 오류는 영어를 아는 원어민이라면 영어를 가르칠 수 있는 자격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Choe, 2005). Phillipson(1992)은 본 오류를 통하여 단지 원어민이라고 해서 영어 교수에 있어 더욱 자격이 있다는 것에 부정하고, 영어와 교수철학에 대한 교육 없이는 자격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지적한다. 즉, 원어민 영어교사와 비원어민 영어교사가 자격을 갖추고 학습자 문화의 이해를 수반한 상황에서 각자 역할을 이행해야 효과적인

영어 수업을 이끌어낼 수 있다는 것이다.

최근에는 많은 비영어권의 국가의 공교육 내에서 원어민 영어교사와 비원어민 영어교사가 함께 수업을 진행하는 경우를 흔히 볼 수 있는데 원어민 영어교사와 비원어민 영어교사의 집단별 교수행동특성이 다르게 인식되는 것을 Medyes(2001)의 연구를 통해 살펴볼 수 있으며 정리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표 II -1> 원어민 영어교사(NEST)와 비원어민 영어교사(non-NEST)의 교수행동특성 비교

	NEST	non-NEST
Own use of English	Speak better English	Speak poorer English
	Use real language	Use "bookish" language
	Use English more confidently	Use English less confidently
General attitude	Adopt a more flexible approach	Adopt a more guided approach
	Are more innovative	Are more cautious
	Are less empathetic	Are more empathetic
	Attend to perceived needs	Attend to real needs
	Have far-fetched expectations	Have realistic expectations
	Are more casual	Are stricter
Attitude to teaching the language	Are less committed	Are more committed
	Are less insightful	Are more insightful
	Focus on: Fluency, Meaning, Language in use, Oral skills, Colloquial registers	Focus on: Accuracy, Form, Grammar rules, Printed word, Formal registers
	Teach items in context	Teach items in context
	Prefer free activities	Prefer controlled activities
	Favor group work/pair work	Favor frontal work
	Use a variety of materials	Use a single textbook
	Tolerate errors	Correct/punish for errors
	Set fewer tests	Set more tests
	Use no/less L1	Use more L1
Resort to no/less translation	Resort to more translation	
Assign less homework	Assign more homework	
Attitude to teaching culture	Supply more cultural information	Supply less cultural information

2. 한국의 원어민 영어교사제도¹⁾

우리나라 영어교육에 원어민 영어교사가 최초로 도입된 것은 1966년으로 미국 평화봉사단(Peace Corps) 소속 영어교사 약 2000명이 전국의 중등학교, 교사연수 프로그램, 각 대학의 영문과와 기타 전문기관에서 영어를 가르치기 시작하면서 부터이다(배두본, 1990). 본격적으로 시행된 것은 1995년에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원어민 영어보조교사 초빙·활용 사업인 EPIK 프로그램을 실시하기 시작하면서부터이며 당해에는 54명, 1996년에는 632명, 1997년에는 856명을 초빙하였다. 본 프로그램을 통하여 비원어민 영어교사들의 선언적 지식 전달 위주의 전통적인 수업을 지양하고, 원어민 영어교사와 비원어민 영어교사간의 협동수업을 통하여 학습자 활동을 통한 절차적 지식을 추구하는 새로운 영어 교수방법을 정착시키고자 하였다(교육부, 1997; EPIK, 1997).

2006년 4월 30일을 기준으로 원어민 영어교사는 전국적으로 교육청, 연수원 및 초·중·고등학교에 1,909명이 배치되어 있으며 출신 국가별로 캐나다와 미국이 각각 737명(38.6%), 684명(35.8%)으로 가장 많았고, 연령별로는 20대와 30대가 각각 942명(49.3%), 614명(32.1%)을 구성하고 있다.

한편 본격적으로 원어민 영어교사 프로그램이 실시된 지 10여 년이 지나고 전국적으로 원어민 영어교사에 대한 수요가 급증한 상황이지만 원어민 교사의 모집과 활용 체계의 미흡으로 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지원되는 막대한 예산에 비해서 성과에 대한 의문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효율적인 원어민 영어교사의 활용방안에 대한 연구가 요구되는 현 시점에서 원어민 영어교사 프로그램의 문제점을 찾아보고자 한다.

1) 2006년 이후의 EPIK 및 원어민 영어교사에 관한 자료는 교육인적자원부 영어혁신방향정책 참고자료를 참조하였음을 밝힌다.

첫째, 원어민 영어교사의 선발 및 관리 과정이 비전문적이고 비효율적인 구조로 되어있다. 2006년 8월을 기준으로 원어민 영어교사 선발을 담당하는 기관을 살펴보면 EPIK을 통하여 채용된 원어민 영어교사는 10.7%에 불과하고, 교육청은 34.2%, 지방자치단체는 15.2%, 학교자체는 34%를 나타내고 있다. 국가 단위의 원어민 모집·활용 체계인 EPIK을 통한 공신력 있는 원어민 영어교사의 선발 비율이 매우 낮은 것은 EPIK에 전담인력이 2명만 배치되어 모집 가능인원이 200명 수준에 불과한 것이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또한 시·도 교육청의 영어 담당 장학사가 원어민 교사 모집 및 관리 업무를 맡고 있으나, 여러 업무를 동시에 담당하고 순환 보직으로 인해 전문성이 미흡한 실정이다. 이와 더불어 2006년 8월 기준 본청 및 지역청을 포함한 교육청의 원어민 담당자의 전공 현황을 살펴보면 영어에 관련된 경우가 30.7%인 것으로 조사되어 관리자의 후속적인 전문교육이 시급하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다.

둘째, 원어민 영어교사의 자질에 대한 의문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EPIK 프로그램으로 초빙된 원어민 영어교사가 배치된 전국 400개의 초, 중학교의 원어민, 비원어민 영어교사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살펴보면 비원어민 영어교사의 원어민 영어교사에 대한 불만족 이유로 53.2%가 영어 교사로서 자질과 능력이 부족한 것을 손꼽았다(정길정, 민찬규, 박매란, 1999). 지방자치단체나 일선 학교에 원어민 교사의 선발에 기준이 될 수 있는 EPIK의 경우를 살펴보면 원어민 교사의 자격 기준은 영어 상용 6개국(미국, 캐나다, 영국, 호주, 뉴질랜드, 아일랜드)의 국적 소유자이고, 표준 영어 사용 능력이 우수한 자이며 한국 생활에 적응이 가능하면서 신체 및 정신이 건강한 자이다. 좀 더 구체적으로 다음 표의 고용등급별 자격 기준을 보면 1+등급, 1등급, 2등급, 3등급으로 나누어 선발하는 것을 알 수 있는데 2006

년 4월 기준 전국적으로 1,909명의 원어민 영어교사 중에 1등급은 773명(40%), 2등급은 746명(39%), 3등급은 390명(20%)이 배치되었다. 전공, 경력과는 상관없는 대학 졸업자가 초, 중, 고등학교 및 교육청, 연수원에 390명 배치된 셈이다. 또한 시·도 원어민 영어교사의 자격증 소지현황을 살펴보면 2006년 6월 기준 총 1,657명이 자격증을 소지했고, 해당 국가 교사자격증을 가진 경우는 137명(8.3%), TESOL(Teaching English to Speakers of Other Languages) 혹은 TEFL(Teaching English as a Foreign Languages)을 소지한 경우는 527명(31.8%), 교사자격증과 TESOL 혹은 TEFL을 모두 소지한 경우는 31명(1.9%)으로 나타나 총 695명(41.9%)이 자격증을 소지한 것으로 조사되어 전체 원어민 영어교사의 과반수 이하인 것으로 집계되었다.

<표 II -2> EPIK 고용등급별 자격 기준

등급	자격기준	기본 월보수
1+	- EPIK 1등급 원어민 영어보조교사로 동일 교육청에서 2년간 연속 근무한 자	250만원
1	- 초, 중등교사자격증 소지자로서 공인기관에서 2년 이상의 교육 경력이 있는 자 - 100시간 이상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TESOL/TEFL 등 영어교육자격증 소지자로서 공인기관에서 2년 이상의 교육경력이 있는 자 - 석사학위 소지자로서 공인기관에서 2년 이상의 교육경력이 있는 자	230만원
2	- 초, 중등교사자격증 소지자 - 100시간 이상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TESOL/TEFL 등 영어교육자격증 소지자 - 석사학위 소지자 - 학사학위 소지자로서 공인기관에서 1년 이상의 영어 교육경력이 있는 자	200만원
3	- 학사학위 소지자	180만원

(출처: 영어혁신방향 정책참고자료, 2006)

셋째, 원어민 영어교사 배치의 지역 간 불균형이 발생하였다. 원어민 영어교사 배치 사업이 2004년부터 지방으로 이양되어 교육청 자체사업으로 추진됨에 따라 원어민 영어교사의 확보율은 전체적으로는 급증한 반면 지역 간 격차가 발생하였다. 원어민 영어교사의 수를 초, 중, 고등학교 전체 수로 나누어 보았을 때 지역별 배치 비율이 인천이 37%로 가장 높았고, 서울 31%, 경기 30.4%, 충남 26.7%, 부산 20.1%가 타 지역에 비해 비교적 높았으나 강원 6.7%, 경북 4.4%, 울산 3.6%로 낮아 지역 간 편차가 발생한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원어민 영어교사 배치 현황은 다음의 표와 같은데 총 1,909명 중에 서울, 경기, 부산에만 전체의 54%인 1,039명이 배치된 것을 알 수 있다. 지역 간 원어민 영어교사의 배치 불균형이 진행됨에 따라 원어민 영어교사의 자질에 대한 문제점도 가시화 되었는데 불균형도 가시화 되었는데 1등급의 원어민 영어교사가 서울에서는 총 371명 중 224명(60%), 경기도에서는 총 553명 중 232명(42%), 부산에서는 총 115명 중 35명(30%), 인천에서는 총 155명 중 33명(21%), 경북에서는 총 41명 중 6명(15%), 대전에서는 총 31명 중 3명(10%)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3> 원어민 영어교사의 교육(행정)기관 배치 현황('06.4.30현재)

(단위: 명)

지역	본청 및 지역교육청	연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합계
서울	8	12	224	70	57	371
부산	0	4	34	57	20	115
대구	1	0	14	12	5	32
인천	0	10	47	63	35	155
광주	2	1	5	9	6	23
대전	0	4	8	10	9	31
울산	0	0	0	3	4	7
경기	1	8	277	134	133	553
강원	18	6	5	3	9	41
충북	1	1	6	21	4	33
충남	0	0	46	118	30	194
전북	21	0	0	0	2	23
전남	0	0	56	66	40	162
경북	0	0	3	25	13	41
경남	0	0	49	26	12	87
제주	1	10	7	14	9	41
계	53	56	781	631	388	1,909

(출처: 영어혁신방향 정책참고자료, 2006)

3. 협동수업(Team-Teaching)

협동수업은 미국에서 1950년대 후반에 시작되었고 두 명 이상의 교사가 같은 그룹의 학습자를 위하여 함께 수업의 계획, 실행, 평가를 하는 것으로 정의할 수 있다. Quinn과 Kanter(1984)는 협동수업을 “simply team work between two qualified instructors who, together, make presentations to an audience.” 라고 정의하면서 두 가지로 분류하였다.

- 1) 두 명 이상의 교사가 같은 교실에서 같은 학생들을 동시에 가르치는 경우
- 2) 두 명 이상의 교사가 같이 근무는 하되 반드시 동시에 같은 학생들을 가르치지 않는 경우

Maroney(1995)는 1)의 두 명 이상의 교사가 같은 교실에서 같은 학생들을 동시에 가르치는 경우에 해당되는 모델을 여섯 가지로 나누어 제시하고 있다.

첫째, 전통적인 협동수업(Traditional Team-Teaching)이다. 교사들은 수업에 함께 임하며 모든 학생들에게 수업의 내용을 전달하게 되는데 예를 들어 한 교사가 수업에서 내용을 전달하는 동안 다른 교사는 OHP 등을 이용하여 내용을 기입한다. 둘째, 협력수업(Collaborative Teaching)이다. 교사들은 함께 수업을 계획하고, 학생들 앞에서 생각이나 이론들을 토론하면서 교수자료를 이용하여 가르친다. 셋째, 상호보완적인 협동수업(Complimentary or Supportive Team-Teaching)이다. 이 경우 교사 한 명은 학생들에게 내용을 전달하는 데 중점을 두는 반면, 다른 교사는 주제와 관련된 활동(activities)을 담당한다. 넷째, 평행적인 지도(Parallel Instruction)이다. 학생들을 두 그

룹으로 나누어 각각의 교사가 소그룹에 같은 교수자료(materials)를 가지고 가르치는 것이다. 다섯째, 차등분리 수업(Differentiated Split Class)이다. 학습 욕구(needs)에 따라서 학생들을 소그룹으로 나누고 학습자가 얻고자 하는 학습 욕구를 채워주기 위해 그룹마다 교사가 개별 지도 한다. 마지막으로 교사의 모니터링(Monitoring Teacher)방식이다. 한 교사가 전체 학생들의 교수를 담당하는 반면, 다른 교사는 교실을 둘러보고 학생들의 이해와 행동을 살펴본다.

두 명 이상의 교사가 같이 근무는 하되 반드시 동시에 같은 학생들을 가르치지 않는 경우, 즉 2)의 상황에서도 다양한 형태로 협동수업이 가능하다.

첫째, 협동수업을 진행하는 교사들이 만나서 생각과 자료들을 나누기는 하지만, 역할은 개인적으로 분리되어 진행되는 수업이다. 둘째, 수업은 독립적으로 분리되어 있지만 수업계획서나 보조자료 등의 교수에 필요한 자료들은 공유하는 경우다. 셋째, 한 사람만이 수업 전체의 교수 활동을 계획하는 수업이다. 넷째, 협동수업을 함께 하는 교사들이 계획은 함께 하지만, 각 교사들은 전체 학생들에게 자신의 특화된 부분만 가르쳐 결국 각각의 영역에 맞는 교사들이 전체 학생들을 가르치는 경우이다. 본 연구에서는 협동수업을 ‘원어민 영어교사와 비원어민 영어교사가 함께 수업의 계획, 진행, 평가를 진행하는 수업’으로 정의하기로 한다.

협동수업이 의도한 대로 실행되었을 때 교사는 물론 학생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 협동수업에서 교사들은 한 팀이 되어 학습의 목적 및 계획을 함께 수립하고 이를 수업에 반영하고, 평가한다. 이러한 과정에서 상대방의 지도방법 및 교수철학에 대해 건설적인 피드백을 주고받을 수 있게 되어 자연스럽게 학생들은 질 높은 수업을 받을 수 있게 된다(Rebecca & Bridget, 2001). 그러나 협동수업에 다음과 같은 부정적인 측면 또한 지적된다. 우선,

한 교사가 다른 교사보다 준비를 많이 해야 하는 경우가 생기고 비용 문제 또한 발생할 수 있다. 상황에 따라서는 원어민 영어교사가 비원어민 영어교사에게 영어를 지도해야 하는 경우도 생길 수 있으며 원어민 영어교사가 우리나라 교과서보다 원어민 나라에서 사용하는 교재를 사용하려고 할 경우 비원어민 영어교사에게는 현실적으로 더욱 큰 부담이 될 수도 있다(박용주, 1998)

한편 우리나라는 원어민 영어교사 제도를 실시하기 이전에 협동수업에 대한 본격적인 연구가 선행되지 않아 원어민 영어교사와의 협동수업이나 활용 방식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가 미비해 상당히 혼란을 겪어왔다(정길정, 민찬규, 박매란, 1999). 이러한 가운데 다음과 같은 점들을 고려하여 협동수업에 활용 한다면 긍정적인 방향의 변화를 통해 유익한 협동수업을 실행할 수 있을 것이다.

첫째, 협동수업에 임하는 교사 간에 수업에 관련한 것은 사소한 것이라도 명확히 의사소통이 되어야 한다.

둘째, 수업 전 계획 단계에서 교사 간에 강점과 약점을 파악하여 강화 및 보완을 함으로써 수업의 질을 향상시킨다.

셋째, 한 학기 내지는 두 학기의 학습목표 및 학습계획을 세우고 관련 교재 등을 최대한 통일시킨다.

넷째, 협동수업 중 정기적으로 손동작, 시선 맞추기 등을 통해 신호를 보내어 단계를 확인하고 늘 시간을 체크한다.

다섯째, 학생들이 중심이 된 활동(student-centered activities) 중에 두 교사는 이등분된 공간을 순회하며 학생들의 주어진 과제를 확인하고 피드백 한다.

여섯째, 두 교사는 수업에서 담당해야 할 영역을 할당해서 효과적으로 지

도한다.

일곱째, 두 교사는 수업 중 학생 관리에 대한 규칙을 공동으로 정하고 지킨다.

마지막으로, 서로 동의가 이루어진 원칙하에 평가의 기준을 정해 공동으로 학생들을 평가하고 결과를 산출한다(Rebecca & Bridget, 2001).

Ⅲ. 연구 방법

1. 연구 대상 및 연구 절차

본 연구는 서울시와 경기도 및 인근 시도의 중, 고등학교에 근무하고 있는 비원어민 영어교사 137명, 원어민 영어교사 76명을 대상으로 설문을 실시하였다. 비원어민 영어교사와 원어민 영어교사의 연구 대상자 선정과 설문 절차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원어민 영어교사

원어민 영어교사 설문 응답자를 찾기 위해 일차적으로 서울시와 경기도 전역에 있는 중, 고등학교에 무작위로 전화조사를 실시하였다. 경기도는 서울에 비해 많은 중, 고등학교에서 원어민 영어교사 응답자를 찾을 수 있었으나 서울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아 서울시 각 지방교육청의 담당 장학사를 통하여 원어민 영어교사가 재직 중인 서울시 소재의 명단을 구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서울시와 경기도의 원어민 영어교사에게 설문에 대한 동의를 구하였고 응답자 중에 다른 학교의 동료교사에게 이메일을 전송하거나 자발적으로 SMOE(Seoul Metro organization of Education) 월드와 같은 커뮤니티에 본 설문을 게재하여 응답을 하도록 유도하여 설문대상자의 지역적인 제한은 크게 두지 않았다.

원어민 영어교사의 경우에는 한 학교당 한 명이 재직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주로 이메일을 통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우편을 이용한 비원어민

교사의 설문조사 시 같은 학교 내에 원어민 영어교사가 근무하고 있는 경우에는 원어민 영어교사용 설문지도 같이 동봉하여 의뢰하기도 하였다. 설문 회수는 이메일과 함께 첨부한 설문지 파일을 응답자가 다운로드하여 기입한 후 다시 첨부하여 반송을 하는 방식으로 실시하였다.

설문은 2007년 4월 한 달간 실시하였으며 총 107부를 발송하고, 76부를 회수하였지만 자발적으로 참여한 설문 응답자가 존재하므로 회수율을 정확히 측정하기는 곤란하다. 총 75개교의 76명에게 설문을 실시하였는데 그 중 중학교에 재직하는 경우는 51명, 고등학교의 경우에는 25명이었으며 서울의 경우 24명, 경기도 및 기타 지역의 경우 52명의 분포를 보였다. 응답자의 59.2%가 남자이고, 연령대의 경우 20대와 30대가 81.5%를 나타냈으며 한국에서 영어를 가르친 총 경력은 1년 미만이 40.8%, 1년 이상에서 2년 미만이 31.6%를 차지했다. 원어민 영어교사에 대한 자세한 설문조사 결과는 다음 장에서 살펴보도록 하겠다.

2) 비원어민 영어교사

비원어민 영어교사의 설문 응답자를 찾기 위해 일차적으로는 연구자와 친분이 있는 중, 고등학교 교사들 중에 근무지가 서울과 경기도인 영어교사들에게 협조를 구하여 설문을 의뢰했지만, 현직 교사들이 자주 이용하는 인터넷 커뮤니티에 설문을 게재 하는 방법을 사용함으로써 조사 대상자의 지역적인 제한은 크게 두지 않았다.

영어교사가 대개 중학교에는 3명에서 6명, 고등학교에는 6명에서 16명 정도가 재직 중이었으므로 회수율을 높이기 위해 주로 학교별로 우편을 이용하여 설문지를 배포하였고, 간헐적으로 이메일을 이용하기도 하였다. 회수는

직접 회수, 반송용 봉투를 이용한 회수, 이메일을 통한 회수 방법을 이용했다.

설문은 2007년 4월 한 달간 실시하였으며 총 165부를 발송하고, 137부를 회수하였지만 자발적으로 참여한 설문 응답자가 존재하므로 회수율을 정확히 측정하기는 곤란하다. 설문에 응한 137명의 비원어민 영어교사 중 중학교에 재직하는 경우는 17개교의 71명, 고등학교의 경우는 20개교의 66명 이었다. 재직 중인 학교가 서울 소재인 경우가 77명, 경기도 및 기타지역은 60명의 분포를 보였으며, 원어민 영어교사가 근무하고 있는 학교에 재직 중인 경우는 56명으로 총 비원어민 영어교사 응답자의 약 40.8%를 차지하였다. 응답자의 82.5%가 여자였으며, 연령대의 경우 30, 40대가 70.8%를, 교직경력은 15년 이상이 36.5%를 나타냈으며, 5년 미만의 경우도 28.5%를 차지했다. 비원어민 영어교사에 대한 자세한 설문조사 결과는 다음 장에서 살펴보도록 하겠다.

2. 설문지

본 설문지는 중, 고등학교에 재직 중인 원어민 영어교사와 비원어민 영어교사가 본인과 상호 집단의 교수행동, 교수영역, 교수방법에 대한 인식 비교 및 평가를 위해 고안되었으며 설문의 문항 제작 시 Medgyes(2005)와 김신혜(2005)의 설문 문항을 부분적으로 참조하였음을 밝힌다. 비원어민 영어교사용 설문지(부록1 참조)는 한글로, 원어민 영어교사용 설문지(부록 2참조)는 영어로 제작되었으며, 총 여섯 개의 영역 중 영역5를 제외하고는 전 영역이 동형(同型) 문항으로 구성되었다. 응답자에 대한 배경조사를 제외하고 비원

어민 영어교사용은 17문항, 원어민 영어교사용은 15문항으로 구성되었으며 대부분의 설문 지문은 선다형으로 이루어져 있으나 질문에 대한 보충 기술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경우에는 개인의 의견을 기술하도록 하였다. 본 설문의 대부분의 문항은 한 가지의 답을 선택하는 것이 원칙이나 복수응답이 필요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여러 개의 답에 표시하도록 하였다. 또한 작성된 설문은 예비 설문조사를 통하여 설문지의 오류를 최소화 하도록 노력하였으며 문항별 영역 및 내용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표로 정리해 보았다.

<표 III-1> 설문지 문항 영역 및 내용

영역	내용	세부사항
영역1	원어민 영어교사와 비원어민 영어교사에 대한 인식	평소에 가지고 있는 인식을 바탕으로 - 교수행동을 두 집단의 특징으로 구분하기 - 교수영역별로 두 집단의 우열 나타내기
영역2	원어민 영어교사에 대한 평가	직간접 경험을 통한 자기평가, 동료평가를 실시하여 - 원어민 영어교사의 교수행동, 교수영역별 평가
영역3	비원어민 영어교사에 대한 평가	- 비원어민 영어교사의 교수행동, 교수영역별 평가
영역4	원어민 영어교사와 비원어민 영어교사의 영어교수방법	수업 시 중점을 두는 영역, 수업 형태, 수업자료 등
영역5	원어민 영어교사제도	문제점, 배치, 적절한 비율에 대한 의견
영역6	원어민 영어교사와 비원어민 영어교사로서의 만족도 및 제안	- 만족도 - 상대 집단의 교수능력 향상, 원어민 영어교사제도의 효율적 운영, 현 영어교육 발전을 위해 제안할 점

3. 자료 분석

본 설문은 원어민 영어교사용, 비원어민 영어교사용의 두 종류로 작성되었지만 분석은 그룹1(원어민 영어교사), 그룹2(원어민 영어교사와 함께 재직 중인 비원어민 영어교사), 그룹3(원어민 영어교사가 함께 재직 중이지 않은 비원어민 영어교사)으로 나누어 실시하였다. 설문의 분석은 Excel 2003을 이용하여 빈도수를 도출한 후 백분위로 환산하는 방법을 주로 사용하였다. 영역1은 빈도수와 백분위를 이용하여 분석하였고, 영역2와 영역3의 경우에는 빈도수와 백분위를 이용한 분석과 리커트 척도(Likert Scale)의 평균(Mean)을 이용한 분석 두 가지의 방법을 사용하였다. ‘매우 동의한다’ 혹은 ‘매우 잘한다’를 5점으로, ‘매우 반대한다’ 혹은 ‘매우 못한다’를 1점으로 배분한 후 그 사이의 척도마다 1점 간격으로 점수를 부여하고 평균(Mean)을 구한 후 소문항 별로 비교하였다. 영역4와 영역5는 빈도수와 백분위를 사용하여 분석하였고, 영역6은 만족도를 조사하기 위해 빈도수와 백분위를 사용하였으나, 자유롭게 기술하는 주관식 문항의 경우 동일한 의견별로 정리하여 기술하였다.

IV. 연구 결과 및 분석

1. 설문 참여자에 대한 배경조사

1) 원어민 영어교사

설문에 참여한 원어민 영어교사 76명 중 남자는 45명, 여자는 31명이었고, 중학교에 재직하는 경우는 51명, 고등학교는 25명이었으며 재직 중인 학교가 서울에 소재한 경우는 24명, 경기도 및 기타 지역의 경우는 52명이었다. 연령대는 20대와 30대가 전체의 81.5%를 차지했고, 최종학력은 대학교 졸업이 77.6%였으며 이 중 대학교 및 대학원에서 영어 혹은 교육관련 전공을 한 비율이 38.2%였다. 영어교수 관련 자격증이 있는 경우는 48.7%였고 이 중 40.5%가 TESOL(Teachers of English to Speakers of Other Languages)을, 35.7%가 TEFL(Teaching English as a Foreign Language)을 취득하였다. 현재 근무하고 있는 학교를 포함하여 한국에서 학생들에게 영어를 가르친 경력은 1년 이상-2년 미만인 경우가 39.2%로 가장 많았으며, 6개월 이상-1년 미만이 35.3%를 차지했다. 타 국가에서 영어를 가르쳐 본 경험이 있는가에 대한 질문에는 59%가 ‘있다’라고, 앞으로 한국에서 영어를 가르칠 계획이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72%가 ‘그렇다’라고 응답했다. 원어민 영어교사에 대한 자세한 설문조사 결과는 다음 장에서 살펴보도록 하겠다.

<표 IV-1> 원어민 영어교사 설문 참여자에 대한 배경조사²⁾

구 분		그룹1					
		중학교		고등학교		합계	
		%	명	%	명	%	명
성별	남자	54.9	28	68.0	17	59.2	45
	여자	45.1	23	32.0	8	40.8	31
연령대	20대	62.7	32	60.0	15	61.8	47
	30대	23.5	12	12.0	3	19.7	15
	40대	11.8	6	16.0	4	13.2	10
	50대	0	0	12.0	3	3.9	3
최종학력	대학교 졸업	74.5	38	84.0	21	77.6	59
	대학원 이상	25.5	13	16.0	4	22.4	17
전공/부전공	영어	19.6	10	8.0	2	15.8	12
	교육	13.7	7	20.0	5	15.8	12
	영어 및 교육	5.9	3	0	0	3.9	3
	TESOL	3.9	2	0	0	2.6	2
	기타	52.9	27	68.0	17	57.9	44
영어교수 관련 자격증	있다	47.1	24	52.0	13	48.7	37
	없다	52.9	27	48.0	12	51.3	39
자격증	TESOL	48.0	12	29.4	5	40.5	17
	TEFL	32.0	8	41.2	7	35.7	15
	기타	20.0	5	29.4	5	23.8	10
한국에서의 영어교수 경력	6개월 미만	5.9	3	4.0	1	5.3	4
	6개월 이상-1년 미만	35.3	18	36.0	9	35.5	27
	1년 이상-2년 미만	39.2	20	16.0	4	31.6	24
	2년 이상-3년 미만	15.7	8	20.0	5	17.1	13
	3년 이상	3.9	2	24.0	6	10.5	8
타 국가에서의 교수경력	있다	39.2	20	32.0	8	36.8	28
	없다	60.8	31	56.0	14	59.2	45
한국에서의 영어교수 계획	있다	74.5	38	68.0	17	72.4	55
	없다	19.6	10	32.0	8	23.7	18

2) 백분율 합산 시 100%가 되지 않은 경우 미달된 정도가 무응답 수치임

2) 비원어민 영어교사

비원어민 영어교사의 경우에는 연구 결과의 정확성을 위하여 재직 중인 학교에 원어민 영어교사가 재직 중인 경우(그룹2)와 그렇지 않은 경우(그룹3)로 나누어 조사하였다.

우선 그룹2를 살펴보자면 총 56명 중 여자가 50명이었고, 중학교에 재직하는 경우는 46명, 고등학교는 10명이었으며 학교가 서울에 소재한 경우는 24명, 경기도 및 기타 지역의 경우 32명이었다. 연령대의 경우 30대와 40대가 전체의 73.2%를 차지했으며, 최종학력은 대학교 졸업이 60.7%를 나타냈다. 교직 경력은 10년 이상이 55.4%이었으며, 영어권 국가의 체류 경험이 전혀 없는 경우가 35.2%를 차지했다. 본인의 영어실력을 평가하였을 때 보통 혹은 조금 나은 편이라고 87.5%가 응답하였다.

그룹3의 경우에는 총 81명 중 여자가 63명이었고, 중학교에 재직하는 경우는 25명, 고등학교는 56명이었으며 학교가 서울에 소재한 경우는 53명, 경기도 및 기타 지역의 경우 28명이었다. 연령대의 경우 30대가 전체의 45.7%를, 20대와 40대는 각각 23.5%를 차지했으며 최종학력은 대학교 졸업이 55.6%였다. 교직 경력은 5년 미만과 15년 이상이 각각 32.1%를 차지했으며, 영어권 국가의 체류 경험이 없는 경우가 23.2%로 나타났다. 본인의 영어실력을 평가하였을 때 보통 혹은 조금 나은 편이라는 의견이 90.2%로 대다수가 응답하였다. 비원어민 영어교사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는 다음 장에서 살펴보도록 하겠다.

<표 IV-2> 비원어민 영어교사 설문 참여자에 대한 배경조사³⁾

분류		그룹2				그룹3			
		중학교		고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	명	%	명	%	명	%	명
성별	남자	10.9	5	10.0	1	12.0	3	26.8	15
	여자	89.1	41	90.0	9	88.0	22	73.2	41
연령대	20대	8.7	4	50.0	5	16.0	4	26.8	15
	30대	34.8	16	40.0	4	40.0	10	48.2	27
	40대	43.5	20	10.0	1	32.0	8	19.6	11
	50대 이상	13.0	6	0.0	0	12.0	3	5.4	3
최종 학력	대학교 졸업	63.0	29	50.0	5	68.0	17	50.0	28
	석사과정 이상	34.8	16	50.0	5	32.0	8	41.1	23
	박사과정 이상	2.2	1	0.0	0	0	0	7.1	4
교직 경력	5년 미만	19.6	9	40.0	4	32.0	8	32.1	18
	5년 이상-10년 미만	15.2	7	50.0	5	20.0	5	25.0	14
	10년 이상-15년 미만	15.2	7	0	0	8.0	2	8.9	5
	15년 이상	50.0	23	10.0	1	40.0	10	28.6	16
영어권 국가 체류 경험	어학연수	43.2	19	40.0	4	40.0	10	29.9	20
	유학	2.3	1	0	0	4.0	1	16.4	11
	여행	20.5	9	20.0	2	32.0	8	32.8	22
	근무	0	0	0	0	0	0	0	0
	없음	34.1	15	40.0	4	36.0	9	19.4	13
본인의 영어 실력 평가	매우 뛰어남	2.2	1	0.0	0	4.0	1	3.6	2
	조금 나은 편	15.2	7	20.0	2	40.0	10	32.1	18
	보통	73.9	34	60.0	6	56.0	14	55.4	31
	조금 부족한 편	6.5	3	20.0	2	0	0	5.4	3
	매우 부족함	2.2	1	0	0	0	0	1.8	1

3) 백분율 합산 시 100%가 되지 않은 경우 미달된 정도가 무응답 수치임

2. 원어민 영어교사와 비원어민 영어교사에 대한 인식

1) 교수행동 특성

설문지의 첫 번째 문항은 총 11개의 소문항으로 구성되었으며 원어민 영어교사 집단과 비원어민 영어교사 집단에게 같은 내용을 각각 영어와 한글로 작성하였다. 본 문항은 응답자가 각각의 소문항에 대하여 평소에 가지고 있던 원어민 영어교사와 비원어민 영어교사에 대한 생각을 바탕으로 원어민 영어교사(NEST), 비원어민 영어교사(non-NEST), 두 그룹 모두(BOTH) 혹은 두 그룹 모두 해당되지 않는 경우(NONE) 중 한 가지를 선택하도록 제작되었다. 소문항 11개 모두에 일괄 응답하지 않은 경우에는 무응답 처리하였으며 편의를 위하여 그룹1은 원어민 영어교사 집단, 그룹2는 원어민 영어교사와 함께 재직 중인 비원어민 영어교사 집단, 그룹3은 원어민 영어교사와 함께 재직 중이지 않는 비원어민 영어교사 집단으로 정의하고자 한다. 표에서 무응답은 생략해서 표기하였으며,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① 수업 준비를 위해 시간을 많이 투자한다.

수업 준비의 시간 투자에 대한 의견에 그룹1(50%)과 그룹2(64.3%)는 원어민 영어교사와 비원어민 영어교사 모두가 수업 준비를 위해 시간을 많이 투자한다고 응답한 반면, 그룹3(50.6%)의 경우에는 비원어민 영어교사가 수업 준비를 위해 시간을 많이 투자한다고 응답하였다.

<표 IV-3> 수업 준비 시 많은 시간을 투자하는 집단

구분	그룹1	그룹2	그룹3
NEST	27.6%	14.3%	13.6%
non-NEST	10.5%	19.6%	50.6%
BOTH	50.0%	64.3%	28.4%
NONE	9.2%	0.0%	1.2%

이는 그룹1과 그룹2의 경우에는 함께 수업을 하거나 근무하면서 서로의 일과나 수업 준비 정도를 파악하여 긍정적인 이해가 형성되었다고 할 수 있고, 그룹3의 경우에는 수업 준비 면에서 비원어민 영어교사 집단에게 좀 더 긍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음을 나타낸다고 해석할 수 있다.

② 수업지도안을 엄수한다.

그룹1의 경우 비원어민 영어교사(60.5%)가 원어민 영어교사(5.3%)보다, 그룹3의 경우에도 비원어민 영어교사(44.4%)가 원어민 영어교사(25.9%) 보다 수업지도안을 잘 지키고 있다고 응답했다. 반면에 그룹2의 경우 원어민 영어교사(37.5%)가 비원어민 영어교사(19.6%)보다 수업지도안을 잘 엄수한다고 응답하였다.

<표 IV-4> 수업지도안을 엄수하는 집단

구분	그룹1	그룹2	그룹3
NEST	5.3%	37.5%	25.9%
non-NEST	60.5%	19.6%	44.4%
BOTH	9.2%	21.4%	8.6%
NONE	22.4%	19.6%	14.8%

본 결과는 크게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는 데 그 중 하나는 그룹1과 그룹2 간에 상대 그룹이 더 잘 엄수한다고 인식하고 있어 본인 그룹보다 상대 그룹이 더욱 수업 진행을 계획에 근거하여 진행하고 있다는 긍정적인 생각을 하고 있는 반면, 원어민 영어교사가 재직 중인 그룹2에 비해 그렇지 않은 그룹3은 비원어민 영어교사가 수업지도안을 더욱 잘 엄수한다고 하여 비원어민 영어교사 집단에게 좀 더 긍정적인 생각을 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한편, 원어민 영어교사가 설문지의 마지막 제안 문항 부분에서 구체적인 수업지도안이나 원어민 영어교사가 가르쳐야 할 커리큘럼의 제시를 요구했던 것을 근거로, 본인 집단의 수업지도안 자체에 대한 신뢰가 그다지 높지 않으며 현실적으로 잘 지켜지지 않을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고 해석할 수도 있다.

③ 학생에게 점수를 줄 때 엄격한 편이다.

그룹1(50%), 그룹2(60.7%), 그룹3(42%) 모두 비원어민 영어교사가 점수를 줄 때 더욱 엄격한 편이라고 응답한 반면, 그룹3은 두 번째 다수 의견으로 원어민 영어교사(34.6%)라고 응답하여 비원어민 영어교사(42%)라는 의견과 큰 차이를 보이지는 않았다.

<표 IV-5> 학생 평가 시 엄격한 태도를 취하는 집단

구분	그룹1	그룹2	그룹3
NEST	10.5%	14.3%	34.6%
non-NEST	50.0%	60.7%	42.0%
BOTH	2.6%	8.9%	16.0%
NONE	34.2%	14.3%	1.2%

④ 시험을 많이 본다.

그룹1(63.2%), 그룹2(80.4%), 그룹3(79%) 모두 과반수가 비 원어민 영어교사가 더욱 시험을 많이 본다고 응답하였고, 원어민 영어교사라는 의견에는 세 그룹 각각 0%, 3.6%, 11.1%로 응답하였다.

<표 IV-6> 시험을 많이 보는 집단

구분	그룹1	그룹2	그룹3
NEST	0.0%	3.6%	11.1%
non-NEST	63.2%	80.4%	79.0%
BOTH	0.0%	3.6%	2.5%
NONE	34.2%	10.7%	1.2%

⑤ 상황에 대한 즉각적인 대응능력이 좋다.

그룹1은 원어민 영어교사(68.4%)가 즉각적인 대응능력이 좋다고 판단한 반면, 그룹2(51.8%)와 그룹3(44.4%)은 비 원어민 영어교사가 즉각적인 대응능력이 좋다고 판단하였다. 그룹3은 원어민 영어교사의 경우에도 35.8%를 응답하여 근소한 차이만을 보였다.

<표 IV-7> 상황에 대한 즉각적인 대응능력이 좋은 집단

구분	그룹1	그룹2	그룹3
NEST	68.4%	19.6%	35.8%
non-NEST	1.3%	51.8%	44.4%
BOTH	19.7%	23.2%	11.1%
NONE	7.9%	3.6%	2.5%

이 항목에서 ‘즉각적인 대응능력’ 이 두 가지로 해석되었을 가능성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그 이유는 그룹1은 즉각적인 영어 활용(Language in use)을 통한 즉각적인 대응능력을 보여줄 수 있는 것은 원어민 영어교사라고 생각하는 것이고, 그룹2는 학생들을 통제하고 수업을 진행하는 면에서는 비원어민 영어교사가 즉각적인 대응능력이 좋다고 생각한 것으로 보이며, 그룹3의 경우는 위의 두 가지 경우가 합쳐진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이다.

⑥ 다양한 교수방법을 사용하는 것을 선호한다.

그룹1(71.1%), 그룹2(42.9%), 그룹3(69.1%) 모두 원어민 영어교사가 비원어민 영어교사에 비해 다양한 교수방법을 사용하는 것을 선호한다고 응답하였다. 그 중 그룹1과 그룹3은 중, 고등학교에 상관없이 원어민 영어교사가 다양한 교수방법을 사용하는 것을 선호한다고 하였지만, 그룹2의 경우는 중, 고등학교의 응답이 크게 상이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학교에 재직하는 그룹2의 영어교사는 원어민 영어교사(34.8%), 비원어민 영어교사(28.3%), 원어민과 비원어민 영어교사 모두(28.3%)에 고르게 응답하였고, 고등학교에 재직하는 영어교사는 원어민 영어교사(80%)가 다양한 교수방법을 사용하는 것을 선호한다고 응답하였다.

<표 IV-8> 다양한 교수방법의 사용을 선호하는 집단

구분	그룹1			그룹2			그룹3		
	1)중	2)고	1)+2)	3)중	4)고	3)+4)	5)중	6)고	5)+6)
NEST	68.6%	76.0%	71.1%	34.8%	80.0%	42.9%	72.0%	67.9%	69.1%
non-NEST	0.0%	8.0%	2.6%	28.3%	10.0%	25.0%	16.0%	8.9%	11.1%
BOTH	25.5%	16.0%	22.4%	28.3%	10.0%	25.0%	4.0%	17.9%	13.6%
NONE	2.0%	0.0%	1.3%	6.5%	0.0%	5.4%	0.0%	0.0%	0.0%

그룹3은 그룹2에 비해서 중, 고등학교 구분 없이 막연하게 원어민 영어교사가 다양한 교수방법을 사용하는 것을 선호한다고 생각하는 것을 보아 원어민 영어교사와 함께 근무하는 그룹2가 그렇지 않은 그룹3보다 더욱 구체적인 인식을 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또한 뒷부분에 나오는 본 설문문의 문항 7번의 사용하는 교수자료에 대한 결과를 살펴보았을 때, 중학교가 고등학교에 비해서 좀 더 다양한 방법을 사용한다는 응답이 나온 것을 알 수 있고, 특히 고등학교의 경우 입시위주의 영어교육이 영어수업의 다양성을 저해한다는 기타 의견이 도출된 것을 보아 그룹2의 중, 고등학교 간의 차이를 뒷받침 해주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⑦ 계속해서 틀린 곳을 지적하는 경향이 있다.

그룹2(69.6%)와 그룹3(64.2%) 모두 비원어민 영어교사가 틀린 곳을 계속해서 지적하는 경향이 많다고 응답한 반면 그룹1은 원어민 영어교사(26.3%), 비원어민 영어교사(22.4%), 원어민과 비원어민 영어교사 모두(27.6%), 두 교사 모두 아님(21.1%)에 고르게 응답하였다.

<표 IV-9> 틀린 곳을 계속해서 지적하는 집단

구분	그룹1	그룹2	그룹3
NEST	26.3%	14.3%	12.3%
non-NEST	22.4%	69.6%	64.2%
BOTH	27.6%	0.0%	8.6%
NONE	21.1%	14.3%	8.6%

이를 통해 비원어민 영어교사는 계속해서 틀린 곳을 지적하는 경향이 원어

민 영어교사와 비원어민 영어교사를 구분 지을 수 있는 특성이라고 응답했지만, 원어민 영어교사의 경우 개인의 교수행동에 따른 차이일 뿐 원어민 혹은 비원어민 영어교사의 특징이라고 규정짓기는 힘들다는 반응을 나타낸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⑧ 수업을 흥미롭게 진행한다.

그룹1(68.4%), 그룹2(44.6%), 그룹3(51.9%) 모두 원어민 영어교사가 수업을 더욱 흥미롭게 진행한다고 응답하였지만 그룹2는 원어민 영어교사와 비원어민 영어교사 모두에도 35.7%를 응답하여 근소한 차이만을 보였다.

<표 IV-10> 수업을 흥미롭게 진행하는 집단

구분	그룹1	그룹2	그룹3
NEST	68.4%	44.6%	51.9%
non-NEST	0.0%	10.7%	14.8%
BOTH	25.0%	35.7%	22.2%
NONE	3.9%	7.1%	4.9%

⑨ 숙제를 많이 내준다.

그룹1(59.2%)과 그룹3(72.8%)은 중, 고등학교에 상관없이 비원어민 영어교사가 숙제를 더욱 많이 내준다고 응답한 반면, 그룹2 중에서 중학교에 재직하는 교사들은 비원어민 영어교사(71.7%)가, 고등학교에 재직하는 교사들은 원어민 영어교사(90%)가 숙제를 많이 내준다고 응답하여 중, 고등학교 간에

차이를 보였다. 또한 중학교에 재직하는 그룹1(41.2%)과 그룹2(26.1%)는 그룹3(0%)에 비해서 두 영어교사 모두 숙제를 많이 내주지 않는다고 응답하였다.

<표 IV-11> 숙제를 많이 내주는 집단

구분	그룹1			그룹2			그룹3		
	1)중	2)고	1)+2)	3)중	4)고	3)+4)	5)중	6)고	5)+6)
NEST	0.0%	4.0%	1.3%	0.0%	0.0%	0.0%	4.0%	17.9%	13.6%
non-NEST	54.9%	68.0%	59.2%	71.7%	0.0%	58.9%	80.0%	69.6%	72.8%
BOTH	0.0%	0.0%	0.0%	0.0%	90.0%	16.1%	8.0%	5.4%	6.2%
NONE	41.2%	28.0%	36.8%	26.1%	10.0%	23.2%	0.0%	1.8%	1.2%

⑩ 학생들의 언어 실력을 잘 평가할 수 있다.

그룹1은 원어민 영어교사(43.4%)가, 그룹3은 비원어민 영어교사(40.7%)가 학생들의 언어실력을 더욱 잘 평가할 수 있다고 응답하였고, 그룹2는 비원어민 영어교사(37.5%)와 원어민, 비원어민 영어교사 모두(37.5%)에 같게 응답하였다.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그룹2 중에서 고등학교에 재직하는 경우에는 비원어민 영어교사(50%)가, 중학교에 재직하는 경우에는 원어민, 비원어민 영어교사 모두(41.3%)가 학생들의 언어 실력을 잘 평가할 수 있다는 의견을 나타냈다.

<표 IV-12> 학생들의 언어실력을 잘 평가할 수 있는 집단

구분	그룹1			그룹2			그룹3		
	1)중	2)고	1)+2)	3)중	4)고	3)+4)	5)중	6)고	5)+6)
NEST	39.2%	52.0%	43.4%	17.4%	20.0%	17.9%	20.0%	26.8%	24.7%
non-NEST	15.7%	8.0%	13.2%	34.8%	50.0%	37.5%	44.0%	39.3%	40.7%
BOTH	33.3%	28.0%	31.6%	41.3%	20.0%	37.5%	24.0%	25.0%	24.7%
NONE	7.8%	12.0%	9.2%	4.3%	10.0%	5.4%	4.0%	3.6%	3.7%

⑪ 학생들과의 관계가 돈독하다.

그룹2(48.2%)와 그룹3(55.6%)은 비 원어민 영어교사가 학생들과의 관계가 더욱 돈독하다고 응답하다. 그 중 그룹2의 경우에는 원어민과 비원어민 영어교사 모두(35.7%)라는 의견과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그룹1은 원어민, 비원어민 영어교사 모두(42.1%)라고 응답하였지만, 비원어민 영어교사(34.2%)라는 의견과 큰 차이를 보이지는 않았다.

<표 IV-13> 학생들과의 관계가 돈독한 집단

구분	그룹1	그룹2	그룹3
NEST	14.5%	7.1%	17.3%
non-NEST	34.2%	48.2%	55.6%
BOTH	42.1%	35.7%	21.0%
NONE	6.6%	7.1%	0.0%

설문지 첫 번째 문항의 분석결과 원어민 영어교사와 비원어민 영어교사의 교수행동에 대한 인식에서 각 그룹별로 주목할 만한 결과가 도출되었다. 다

음의 표는 각 그룹의 중, 고등학교의 합계를 나타냈으며, 원어민 영어교사 (NEST), 비원어민 영어교사(NNEST), 원어민, 비원어민 영어교사 모두 (BOTH), 어느 집단도 아님(NONE)의 4가지 보기 중 가장 빈도가 높은 응답을 기입하였고, 응답의 비율 차이가 10% 이하인 경우는 두 번째로 빈도가 높은 응답을 순차적으로 기입하였다.

<표 IV-14> 원어민 영어교사와 비원어민 영어교사의 교수행동에 대한 인식

특성	그룹1	그룹2	그룹3
1) 수업 준비를 위해 시간을 많이 투자한다.	BOTH(50)	BOTH(64)	NNEST(51)
2) 수업지도안을 엄수한다.	NNEST(46)	NEST(38)	NNEST(44)
3) 학생에게 점수를 줄 때 엄격한 편이다	NNEST(50)	NNEST(61)	NNEST(42) NEST(35)
4) 시험을 많이 본다.	NNEST(63)	NNEST(80)	NNEST(79)
5) 상황에 대한 즉각적인 대응능력이 좋다.	NEST(68)	NNEST(52)	NNEST(44) NEST(36)
6) 다양한 교수방법을 사용하는 것을 선호한다. ⁴⁾	NEST(71)	NEST(43)	NEST(69)
7) 계속해서 틀린 곳을 지적하는 경향이 있다. ⁵⁾	BOTH(28) NEST(26)	NNEST(70)	NNEST(64)
8) 수업을 흥미롭게 진행한다.	NEST(68)	NEST(45) BOTH(36)	NEST(52)
9) 숙제를 많이 내준다. ⁶⁾	NNEST(59)	NNEST(59)	NNEST(73)
10) 학생들의 언어 실력을 잘 평가할 수 있다. ⁷⁾	NEST(43)	NNEST(38) BOTH(38)	NNEST(41)
11) 학생들과의 관계가 돈독하다.	BOTH(42) NNEST(34)	NNEST(48)	NNEST(56)

(괄호 안의 값은 %를 나타냄)

4) 중학교의 경우 NEST(35%), NNEST(28%), BOTH(28%)로 비슷하였고, 고등학교의 경우 NEST(80%)에 가장 많이 응답하였다.

5) 네 가지 응답 모두 고른 분포를 나타내었다.

6) 중학교의 경우 NNEST(72%), 고등학교의 경우 NEST(90%)로 응답하였다.

7) 고등학교의 경우 NNEST(50%), 중학교의 경우 BOTH(41%)로 응답하였다.

위의 표를 참조하여 세 그룹 모두가 동의한 원어민 영어교사와 비원어민 영어교사의 특성을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총 11가지 소문항 중 5가지 의견에 동의하였다.

**<표 IV-15> 원어민 영어교사와 비원어민 영어교사의 교수행동에 대한 인식
(모든 그룹이 동의한 경우)**

구분	특성
NEST	다양한 교수방법을 사용하는 것을 선호한다.
	수업을 흥미롭게 진행한다.
non-NEST	학생에게 점수를 줄 때 엄격한 편이다.
	시험을 많이 본다.
	숙제를 많이 내준다.

좀 더 구체적으로 비원어민 영어교사인 그룹2와 그룹3 사이에는 동일한 의견을 나타냈지만 그룹1과 비교했을 때는 상이한 결과가 도출된 특성을 살펴 보면 아래와 같다. 그러나 본 비교는 그룹별로 절대적인 차이의 수치로 상이한 것은 아님을 밝힌다.

**<표 IV-16> 원어민 영어교사와 비원어민 영어교사의 교수행동에 대한 인식
(그룹2와 그룹3은 동의하지만 그룹1과는 상이한 경우)**

그룹1	그룹2, 그룹3	특성
NEST	non-NEST ⁸⁾	상황에 대한 즉각적인 대응능력이 좋다.
BOTH/NEST ⁹⁾	non-NEST	계속해서 틀린 곳을 지적하는 경향이 있다.
NEST	non-NEST ¹⁰⁾	학생들의 언어 실력을 잘 평가할 수 있다.
NEST ¹¹⁾	non-NEST	학생들과의 관계가 돈독하다.

8) 그룹3의 경우 NEST(44%)와 non-NEST(38%)간의 차이가 크지 않았다.

9) 응답간의 차이가 매우 미미했으나 BOTH(28%), NEST(26%)가 약간 우세했다.

10) 그룹2의 경우 non-NEST(38%)와 BOTH(38%)의 응답이 동일했다.

한편, 상대집단과 함께 협동수업 중이거나 같이 재직 중인 그룹1, 그룹2는 서로 동의했지만, 그룹3과 비교했을 때는 다른 의견을 나타낸 것은 아래의 항목 한 가지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 IV-17> 원어민 영어교사와 비원어민 영어교사의 교수행동에 대한 인식
(그룹1과 그룹2는 동의하지만 그룹3과는 상이한 경우)**

그룹13	그룹1, 그룹2	특성
non-NEST	BOTH	수업 준비를 위해 시간을 많이 투자한다.

비원어민 영어교사로서 원어민 영어교사의 재직유무에 따른 구분을 한 그룹2와 그룹3 사이에서는 많은 부분 의견이 일치했지만, 다른 의견도 소수 있었다. 다음 표를 통해 그룹2와 그룹3간의 상이한 의견만을 정리해 보았다.

**<표 IV-18> 원어민 영어교사와 비원어민 영어교사의 교수행동에 대한 인식
(그룹2와 그룹3 간에 상이한 경우)**

그룹1	그룹2, 그룹3	특성
BOTH	non-NEST	수업 준비를 위해 시간을 많이 투자한다.
NEST	non-NEST	수업지도안을 엄수한다.

지금까지는 중, 고등학교를 합산하여 그룹별로 살펴보았다. 중, 고등학교를 분리하여 분석하였을 때 그룹3에서는 주목할 만한 결과가 없었지만, 그룹1과 그룹2에서 다음과 같은 결과가 도출되었다.

그룹1의 소문항 7)의 합계를 보았을 때, 전체 네 가지의 보기가 비슷한 비

11) 그룹1의 경우 NEST(42%)와 BOTH(34%)간의 차이가 크지는 않았다.

올로 나온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그 중 비원어민 영어교사라는 응답이 중학교에서는 15.7%로 가장 낮지만, 고등학교에서는 36.0%로 가장 높게 나타나 고등학교에서 비원어민 영어교사가 더욱 틀린 곳을 지적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음이 드러났다.

<표 IV-19> 그룹1의 중, 고등학교간의 상이한 결과(소문항7)

계속해서 틀린 곳을 지적하는 경향이 있다.			
구분	중학교	고등학교	합계
NEST	27.5%	24.0%	26.3%
non-NEST	15.7%	36.0%	22.4%
BOTH	27.5%	28.0%	27.6%
NONE	25.5%	12.0%	21.1%
무응답	3.9%	0.0%	2.6%

그룹2의 경우를 살펴보면, 소문항 6)에서 유의한 결과가 나타났는데 소문항 6)의 경우에 합계는 원어민 영어교사(42.9%)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 중 중학교의 경우 원어민 영어교사(28.3%), 비원어민 영어교사(28.3%), 원어민, 비원어민 영어교사 모두(28.3%)에서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나, 고등학교의 경우 원어민 영어교사가 80%로 압도적으로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표 IV-20> 그룹2의 중, 고등학교간의 상이한 결과(소문항6)

다양한 교수방법을 사용하는 것을 선호한다.			
구분	중학교	고등학교	합계
NEST	34.8%	80.0%	42.9%
non-NEST	28.3%	10.0%	25.0%
BOTH	28.3%	10.0%	25.0%
NONE	6.5%	0.0%	5.4%
무응답	2.2%	0.0%	1.8%

2) 효율적인 교수영역

설문지의 두 번째 문항은 총 8개의 소문항으로 구성되었으며 원어민 영어 교사 집단과 비원어민 영어교사 집단에게 적합하도록 같은 내용을 각각 영어와 한글로 작성하였다. 본 문항은 응답자가 평소에 가지고 있던 원어민 영어교사와 비원어민 영어교사에 대한 생각을 바탕으로 각각의 영어교과의 교수영역에 대하여 원어민 영어교사와 비원어민 영어교사 중 누가 가르치면 더욱 효율적인지 선택하는 것이며 영어교과의 영역은 말하기, 듣기, 읽기, 쓰기, 문법, 어휘, 발음, 영어권 문화로 구성되어있다. 응답 선택은 원어민 영어교사(NEST), 비원어민 영어교사(non-NEST) 두 그룹 중 한 그룹으로 하도록 하였으며 본 문항에 속해있는 8개의 소문항에 일괄 체크하지 않은 경우에는 무응답 처리하였다. 각 표에서 무응답의 수치는 생략하였으며,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① 말하기

그룹1(85.5%), 그룹2(100%), 그룹3(98.8%) 모두 원어민 영어교사가 말하기 영역을 가르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응답하였다.

<표 IV-21> 말하기 교수가 더욱 효율적인 집단

구분	그룹1	그룹2	그룹3
NEST	85.5%	100.0%	98.8%
non-NEST	1.3%	0.0%	1.2%

② 듣기

그룹1(73.7%), 그룹2(62.5%), 그룹3(59.3%) 모두 원어민 영어교사가 듣기 영역을 가르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응답하였다. 그러나 비원어민 영어교사가 가르치는 것이 낫다고 응답한 경우도 그룹1(19.7%)을 포함하여, 그룹2(37.5%), 그룹3(39.5%)에서도 적지 않게 나타났다. 그 중 그룹2는 중학교와 고등학교의 응답이 확연히 다른 것을 볼 수 있는데 중학교의 경우에는 69.6%가 원어민 영어교사가 가르치는 것이 낫다고 응답한 반면, 고등학교의 경우에는 30%만이 원어민 영어교사가 가르치는 것이 낫다고 응답하였다. 그룹3은 중학교의 경우에는 그룹2와 비슷한 결과를 보였지만, 고등학교의 경우에는 원어민 영어교사(57.1%)가 비원어민 영어교사(41.1%)보다 듣기 영역을 더욱 효율적으로 가르친다고 응답하여 두 집단 간의 차이를 나타내었다.

<표 IV-22> 듣기 교수가 더욱 효율적인 집단

구분	그룹1			그룹2			그룹3		
	1)중	2)고	1)+2)	3)중	4)고	3)+4)	5)중	6)고	5)+6)
NEST	72.5%	76.0%	73.7%	69.6%	30.0%	62.5%	64.0%	57.1%	59.3%
non-NEST	19.6%	20.0%	19.7%	30.4%	70.0%	37.5%	36.0%	41.1%	39.5%

③ 읽기

그룹1(55.3%)은 원어민 영어교사가, 그룹2(80.4%)와 그룹3(84.0%)은 비원어민 영어교사가 읽기영역을 가르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응답하였다. 그 중 그룹1은 중학교의 경우 원어민 영어교사와 비원어민 영어교사가 각각 51%,

43.1%로 큰 격차를 보이지 않았지만, 고등학교의 경우 각각 64%, 36%로 차이가 벌어진 것을 알 수 있다.

<표 IV-23> 읽기 교수가 더욱 효율적인 집단

구분	그룹1			그룹2			그룹3		
	1)중	2)고	1)+2)	3)중	4)고	3)+4)	5)중	6)고	5)+6)
NEST	51.0%	64.0%	55.3%	15.2%	30.0%	17.9%	28.0%	10.7%	16.0%
non-NEST	43.1%	36.0%	40.8%	82.6%	70.0%	80.4%	72.0%	89.3%	84.0%

④ 쓰기

그룹1(63.2%)과 그룹3(53.1%)은 원어민 영어교사가, 그룹2(51.8%)는 비원어민 영어교사가 쓰기 영역을 가르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응답하였다. 그러나 그룹2와 그룹3은 각각 원어민 영어교사와 비원어민 영어교사 사이에 10% 이하의 차이만 보이고 있고, 그룹1도 비원어민 영어교사가 더욱 효율적일 것이라고 32.9%가 응답한 것을 보다 큰 차이를 나타내지는 않았다. 중, 고등학교별로 나누어보면, 그룹1의 중학교는 원어민 영어교사(58.8%)와 비원어민 영어교사(35.3%)의 차이가 고등학교의 경우보다 덜 나는 것을 알 수 있다. 반면, 그룹2와 그룹3의 경우 10% 내외의 차이로 중학교에서는 원어민 영어교사가, 고등학교에서는 비원어민 영어교사가 쓰기 영역 교수에 더욱 효율적이라고 응답하였다.

<표 IV-24> 쓰기 교수가 더욱 효율적인 집단

구 분	그룹1			그룹2			그룹3		
	1)중	2)고	1)+2)	3)중	4)고	3)+4)	5)중	6)고	5)+6)
NEST	58.8%	72.0%	63.2%	43.5%	50.0%	44.6%	48.0%	55.4%	53.1%
non-NEST	35.3%	28.0%	32.9%	54.3%	40.0%	51.8%	52.0%	42.9%	45.7%

⑤ 문법

그룹1(80.3%), 그룹2(96.4%), 그룹3(97.5%) 모두 비원어민 영어교사가 문법 영역을 가르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응답하였다.

<표 IV-25> 문법 교수가 더욱 효율적인 집단

구분	그룹1	그룹2	그룹3
NEST	15.8%	1.8%	1.2%
non-NEST	80.3%	96.4%	97.5%

⑥ 어휘

그룹1(64.5%)은 원어민 영어교사가, 그룹2(80.4%)와 그룹3(72.8%)은 비원어민 영어교사가 어휘 영역을 가르치는 것이 효율적일 것이라고 응답하여 집단 간의 인식차이를 분명하게 드러냈다.

<표 IV-26> 어휘 교수가 더욱 효율적인 집단

구분	그룹1	그룹2	그룹3
NEST	64.5%	17.9%	27.2%
non-NEST	32.9%	80.4%	72.8%

⑦ 발음

그룹1(97.4%), 그룹2(98.2%), 그룹3(97.5%) 모두 원어민 영어교사가 발음 영역을 가르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응답하였다.

<표 IV-27> 발음 교수가 더욱 효율적인 집단

구분	그룹1	그룹2	그룹3
NEST	97.4%	98.2%	97.5%
non-NEST	0.0%	1.8%	2.5%

⑧ 영어권 문화

그룹1(96.1%), 그룹2(82.1%), 그룹3(84.0%) 모두 원어민 영어교사가 영어권 문화 영역을 가르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응답하였다. 그러나 그룹2와 그룹3은 고등학교에서는 비원어민 영어교사가 가르치는 것이 효율적일 것이라고 각각 40%, 17.9%가 응답하였다.

<표 IV-28> 영어권 문화 교수가 더욱 효율적인 집단

구 분	그룹1			그룹2			그룹3		
	1)중	2)고	1)+2)	3)중	4)고	3)+4)	5)중	6)고	5)+6)
NEST	96.1%	96.0%	96.1%	87.0%	60.0%	82.1%	88.0%	82.1%	84.0%
non-NEST	0.0%	4.0%	1.3%	13.0%	40.0%	17.9%	12.0%	17.9%	16.0%

설문지 두 번째 문항의 분석결과 원어민 영어교사와 비원어민 영어교사의 효율적인 교수영역에 대하여 주목할 만한 결과가 나타났다. 아래의 표는 각 그룹의 중, 고등학교의 합계를 나타냈으며, 원어민(NEST), 비원어민(non-NEST)의 두 가지의 보기 중 가장 빈도가 높은 응답을 기입하였고, 응답의 비율 차이가 10% 이하였던 문항은 순서대로 두 응답을 기입하였다. 대체적으로 비원어민 영어교사인 그룹2와 그룹3 간에는 차이점이 크게 발견되지 않았지만, 그룹1과는 상이한 결과가 도출되었다. 그룹2의 경우 2)듣기 영역에서 중학교는 원어민 영어교사가, 고등학교는 비원어민 영어교사가 더욱 효율적이라고 응답하였으나 중, 고등학교의 합계로 기입하였음을 밝힌다.

<표 IV-29> 원어민 영어교사와 비원어민 영어교사의 효율적인 교수영역

영역	그룹1	그룹2	그룹3
말하기	NEST	NEST	NEST
듣기	NEST	NEST ¹⁾²⁾	NEST
읽기	NEST	non-NEST	non-NEST
쓰기	NEST	NEST / non-NEST	NEST / non-NEST
문법	non-NEST	non-NEST	non-NEST
어휘	NEST	non-NEST	non-NEST
발음	NEST	NEST	NEST
영어권 문화	NEST	NEST	NEST

3. 원어민 영어교사에 대한 평가

1) 교수행동 평가

설문지의 세 번째 문항은 총 8개의 소문항으로 구성되었으며 그룹1의 경우에는 원어민 영어교사로서의 본인 평가(self-assessment)를, 그룹2의 경우 같이 근무하고 있는 원어민 영어교사 동료 평가(peer-assessment)를, 그룹3의 경우 직, 간접 경험을 통해 원어민 영어교사에 대한 평가를 하도록 고안되었다. 설문지는 각 보기마다 응답한 비율을 통해 분석하였다.

① 영어로 ‘대화’는 할 수 있지만, 영어 문법을 논리적으로 ‘설명’하기에는 곤란함을 겪는다.

‘동의한다’와 ‘매우 동의하다’를 합산하여 비교했을 때 그룹1은 51.3%, 그룹2는 76.8%, 그룹3은 72.8%를 나타냈고, ‘반대한다’와 ‘매우 반대한다’를 합산하여 비교했을 때, 그룹1은 36.8%, 그룹2는 12.5%, 그룹3은 4.9%를 나타내어 그룹2와 그룹3이 그룹1에 비해서 본 문항에 대해 더욱 많이 동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2) 중학교는 NEST, 고등학교는 non-NEST라고 응답하였으나 총합의 결과를 기입하였다.

<표 IV-30> 원어민 영어교사에 대한 교수행동 평가(소문항1)

구분	그룹1	그룹2	그룹3
동의한다+매우 동의한다	51.3%	76.8%	72.8%
보통이다	10.5%	10.7%	21.0%
반대한다+매우 반대한다	36.8%	12.5%	4.9%

② 다양한 보충자료를 사용한다.

‘동의한다’와 ‘매우 동의하다’를 합산하여 비교했을 때 그룹1은 93.4%, 그룹2는 50%, 그룹3은 53.1%를 나타냈고, ‘반대한다’와 ‘매우 반대한다’를 합산하여 비교했을 때, 그룹1은 1.3%, 그룹2는 17.9%, 그룹3은 3.7%를 나타내어 그룹1이 그룹2와 그룹3에 비해서 본 문항에 대해 더욱 동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 고등학교로 나누어 보았을 때, 그룹2와 그룹3은 중학교가 고등학교 보다 약 10% 정도 더욱 많이 동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IV-31> 원어민 영어교사에 대한 교수행동 평가(소문항2)

(단위: %)

구분	그룹1			그룹2			그룹3		
	1)중	2)고	1)+2)	3)중	4)고	3)+4)	5)중	6)고	5)+6)
동의한다+매우 동의한다	94.1	92.0	93.4	52.2	40.0	50.0	60.0	50.0	53.1
보통이다	5.9	4.0	5.3	28.3	50.0	32.1	36.0	44.6	42.0
반대한다+매우 반대한다	0.0	4.0	1.3	19.6	10.0	17.9	4.0	3.6	3.7

③ 한국인 교사의 보조 없이 영어 초급자(beginner)를 가르치기는 힘들다.

‘동의한다’와 ‘매우 동의하다’를 합산하여 비교했을 때 그룹1은 38.1%, 그룹2는 66.1%, 그룹3은 54.3%를 나타냈고, ‘반대한다’와 ‘매우 반대한다’를 합산하여 비교했을 때, 그룹1은 39.5%, 그룹2는 19.7%, 그룹3은 24.7%를 나타냈다. 중, 고등학교로 나누어 보았을 때, 그룹1과 그룹2는 중학교가 고등학교 보다 약 20% 정도 더욱 동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IV-32> 원어민 영어교사에 대한 교수행동 평가(소문항3)

(단위: %)

구 분	그룹1			그룹2			그룹3		
	1)중	2)고	1)+2)	3)중	4)고	3)+4)	5)중	6)고	5)+6)
동의한다+매우 동의한다	45.1	24.0	38.2	69.6	50.0	66.1	52.0	55.4	54.3
보통이다	19.6	28.0	22.4	10.9	30.0	14.3	16.0	21.4	19.8
반대한다+매우 반대한다	35.3	48.0	39.5	19.6	20.0	19.6	32.0	21.4	24.7

④ 원어민 교사의 수업이 우리나라 학교 시험으로 평가하기에는 잘 맞지 않는 부분이 있다.

‘동의한다’와 ‘매우 동의하다’를 합산하여 비교했을 때 그룹1은 40.8%, 그룹2는 62.5%, 그룹3은 87.7%를 나타냈고, ‘반대한다’와 ‘매우 반대한다’를 합산하여 비교했을 때, 그룹1은 34.2%, 그룹2는 10.7%, 그룹3은 3.7%를 나타냈다. 중, 고등학교로 나누어 보았을 때, 그룹1과 그룹2는 고등학교가 중학교에 비해 약 두 배 정도 더욱 동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IV-33> 원어민 영어교사에 대한 교수행동 평가(소문항4)

(단위: %)

구분	그룹1			그룹2			그룹3		
	1)중	2)고	1)+2)	3)중	4)고	3)+4)	5)중	6)고	5)+6)
동의한다+매우 동의한다	31.4	60.0	40.8	54.3	100	62.5	92.0	85.7	87.7
보통이다	25.5	24.0	25.0	32.6	0.0	26.8	8.0	7.1	7.4
반대한다+매우 반대한다	43.1	16.0	34.2	13.0	0.0	10.7	0.0	5.4	3.7

⑤ 학생들이 편한 분위기 속에서 학습하도록 덜 격식화된(casual) 수업을 선호한다.

‘동의한다’와 ‘매우 동의하다’를 합산하여 비교했을 때 그룹1은 72.4%, 그룹2는 64.3%, 그룹3은 75.3%를 나타냈고, ‘반대한다’와 ‘매우 반대한다’를 합산하여 비교했을 때, 그룹1은 6.6%, 그룹2는 21.4%, 그룹3은 1.2%를 나타냈다. 중, 고등학교로 나누어 보았을 때, 그룹2의 경우 중학교는 반대하는 경우가 26.1%인 반면에 고등학교는 0%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 IV-34> 원어민 영어교사에 대한 교수행동 평가(소문항5)

(단위: %)

구분	그룹1			그룹2			그룹3		
	1)중	2)고	1)+2)	3)중	4)고	3)+4)	5)중	6)고	5)+6)
동의한다+매우 동의한다	64.7	88.0	72.4	63.0	70.0	64.3	76.0	75.0	75.3
보통이다	29.4	4.0	21.1	10.9	30.0	14.3	24.0	21.4	22.2
반대한다+매우 반대한다	5.9	8.0	6.6	26.1	0.0	21.4	0.0	1.8	1.2

⑥ 모둠학습(group work)이나 짝학습(pair work)을 효율적으로 잘 활용한다.

‘동의한다’와 ‘매우 동의하다’를 합산하여 비교했을 때 그룹1은 93.4%, 그룹2는 53.5%, 그룹3은 67.9%를 나타냈고, ‘반대한다’와 ‘매우 반대한다’를 합산하여 비교했을 때, 그룹1은 3.9%, 그룹2는 16.1%, 그룹3은 1.2%를 나타내어 그룹1이 그룹2와 그룹3보다 본 항목에 대해 더욱 동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IV-35> 원어민 영어교사에 대한 교수행동 평가(소문항6)

구분	그룹1	그룹2	그룹3
동의한다+매우 동의한다	93.4%	53.6%	67.9%
보통이다	2.6%	30.4%	29.6%
반대한다+매우 반대한다	3.9%	16.1%	1.2%

⑦ 영어권 문화에 대하여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다.

‘동의한다’와 ‘매우 동의하다’를 합산하여 비교했을 때 그룹1은 94.7%, 그룹2는 60.7%, 그룹3은 66.7%를 나타냈고, ‘반대한다’와 ‘매우 반대한다’를 합산하여 비교했을 때, 그룹1은 0%, 그룹2는 14.3%, 그룹3은 3.7%를 나타냈다. 중, 고등학교로 나누어 보았을 때, 그룹2의 경우 중학교(69.6%)가 고등학교(20%)에 비해 더욱 동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IV-36> 원어민 영어교사에 대한 교수행동 평가(소문항7)

(단위: %)

구분	그룹1			그룹2			그룹3		
	1)중	2)고	1)+2)	3)중	4)고	3)+4)	5)중	6)고	5)+6)
동의한다+매우 동의한다	92.2	100	94.7	69.6	20.0	60.7	76.0	62.5	66.7
보통이다	7.8	0.0	5.3	17.4	60.0	25.0	16.0	32.1	27.2
반대한다+매우 반대한다	0.0	0.0	0.0	13.0	20.0	14.3	8.0	1.8	3.7

⑧ 수업에서 한국말을 사용할 줄 안다면 더욱 가르치기가 수월해질 것이다.

‘동의한다’와 ‘매우 동의하다’를 합산하여 비교했을 때 그룹1은 61.9%, 그룹2는 75%, 그룹3은 72.8%를 나타냈고, ‘반대한다’와 ‘매우 반대한다’를 합산하여 비교했을 때, 그룹1은 26.3%, 그룹2는 16.1%, 그룹3은 7.4%를 나타냈다.

<표 IV-37> 원어민 영어교사에 대한 교수행동 평가(소문항8)

구분	그룹1	그룹2	그룹3
동의한다+매우 동의한다	61.8%	75.0%	72.8%
보통이다	11.8%	8.9%	18.5%
반대한다+매우 반대한다	26.3%	16.1%	7.4%

설문지 세 번째 문항의 분석결과 원어민 영어교사의 교수영역 평가에 대하여 주목할 만한 결과가 도출되었다. 그룹1이 그룹2와 그룹3 모두 보다 높거

나 낮은 경우로 나누어 분석한 다음의 표를 살펴보자.

<표 IV-38> 원어민 영어교사에 대한 교수행동 평가
(그룹1>그룹2, 그룹3 vs 그룹1<그룹2, 그룹3)

구분	특성
그룹1>그룹2, 그룹3	다양한 보충자료를 사용한다.
	학생들이 편한 분위기 속에서 학습하도록 덜 격식화된(casual) 수업을 선호한다.
	모둠학습(group work)이나 짝학습(pair work)을 효율적으로 잘 활용한다.
	영어권 문화에 대하여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다.
그룹1<그룹2, 그룹3	영어로 '대화'는 할 수 있지만, 영어 문법을 '설명'하기에는 곤란함을 겪는다.
	한국인 교사의 보조 없이 영어 초급자를 가르치기는 힘들다.
	수업이 우리나라 학교 시험으로 평가하기에는 잘 맞지 않는 부분이 있다.
	수업에서 한국말을 사용할 줄 안다면 더욱 가르치기 가 수월해질 것이다.

한편, 같은 비원어민 영어교사지만 원어민 영어교사의 재직 유무를 기준으로 나눈 그룹2와 그룹3 사이에서도 서로 높거나 낮거나 비슷하게 평가한 것을 알 수 있는데 다음의 표로 정리해 보았다.

<표 IV-39> 원어민 영어교사에 대한 교수행동 평가
(그룹2>그룹3 vs 그룹2<그룹3 vs 그룹2≐그룹3)

구분	특성
그룹2>그룹3	한국인 교사의 보조 없이 영어 초급자를 가르치기는 힘들다.
그룹2<그룹3	다양한 보충자료를 사용한다.
	수업이 우리나라 학교 시험으로 평가하기에는 잘 맞지 않는 부분이 있다.
	학생들이 편한 분위기 속에서 학습하도록 덜 격식화된(casual) 수업을 선호한다.
	모둠학습(group work)이나 짝학습(pair work)을 효율적으로 잘 활용한다.
	영어권 문화에 대하여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다.
수업에서 한국말을 사용할 줄 안다면 더욱 가르치기가 수월해질 것이다.	
그룹2≐그룹3	영어로 '대화'는 할 수 있지만, 영어 문법을 '설명'하기에는 곤란함을 겪는다.

2) 각 영역별 교수평가

설문지의 네 번째 문항은 총 8개의 소문항으로 구성되었으며 제시된 영어 교육의 영역(말하기, 듣기, 읽기, 쓰기, 문법, 어휘, 발음, 영어권 문화)에 대하여 그룹1의 경우에는 원어민 영어교사로서의 본인 평가(self-assessment)를, 그룹2의 경우 같이 근무하고 있는 원어민 영어교사 동료 평가(peer-assessment)를, 그룹3의 경우 직, 간접 경험을 통해 원어민 영어교사에 대한 평가를 하도록 고안 되었다.

① 말하기

‘잘한다’와 ‘매우 잘한다’를 합산하여 비교했을 때 그룹1은 100%, 그룹2는 91.1%, 그룹3은 86.4%를 나타내어 원어민 영어교사의 말하기 영역에 대한 평가는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IV-40> 원어민 영어교사에 대한 말하기 영역 교수평가

구분	그룹1	그룹2	그룹3
잘한다+매우 잘한다	100.0%	91.1%	86.4%
보통이다	0.0%	7.1%	11.1%
못한다+매우 못한다	0.0%	1.8%	0.0%

② 듣기

세 그룹 모두 원어민 영어교사의 듣기에 대한 영어교수실력을 높게 평가하였지만, 그룹3이 말하기 영역에 비해서는 다소 낮게 평가한 것을 알 수 있다. 그룹1, 그룹2, 그룹3이 각각 89.5%, 80.4%, 61.7%를 ‘잘한다’ 이상에 표시하였다. 주목할만한 점은 그룹1의 경우에는 중, 고등학교간에 큰 차이 없이 비슷한 비율을 보였지만, 그룹2와 그룹3은 다소 차이를 나타냈다. 즉, 그룹2의 경우 중학교(87%)와 고등학교(50%), 그룹3의 중학교(80%)와 고등학교(53.6%)간의 평가 차이를 통해 원어민 영어교사의 듣기 교수에 대해 고등학교는 중학교만큼 높은 평가를 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 IV-41> 원어민 영어교사에 대한 듣기 영역 교수평가

(단위: %)

구분	그룹1			그룹2			그룹3		
	1)중	2)고	1)+2)	3)중	4)고	3)+4)	5)중	6)고	5)+6)
잘한다+매우 잘한다	92.2	84.0	89.5	87.0	50.0	80.4	80.0	53.6	61.7
보통이다	7.8	12.0	9.2	10.9	50.0	17.9	16.0	41.1	33.3
못한다+매우 못한다	0.0	4.0	1.3	2.2	0.0	1.8	4.0	1.8	2.5

③ 읽기

읽기 영역의 경우 듣기 영역보다 낮게 평가되었으며, ‘잘한다’ 이상의 평가에 그룹1은 72.4%, 그룹2와 그룹3은 각각 50%, 42%로 응답하였으며 그룹2의 경우 중학교(47.8%)가 고등학교(60%)보다 낮게 평가되었지만, 그룹3의 경우 중학교(68%)가 고등학교(30.4%)보다 높게 평가된 것을 알 수 있다.

<표 IV-42> 원어민 영어교사에 대한 읽기 영역 교수평가

(단위: %)

구분	그룹1			그룹2			그룹3		
	1)중	2)고	1)+2)	3)중	4)고	3)+4)	5)중	6)고	5)+6)
잘한다+매우 잘한다	74.5	68.0	72.4	47.8	60.0	50.0	68.0	30.4	42.0
보통이다	19.6	24.0	21.1	45.7	10.0	39.3	24.0	46.4	39.5
못한다+매우 못한다	2.0	8.0	3.9	6.5	30.0	10.7	8.0	19.6	16.0

④ 쓰기

쓰기 영역의 경우 읽기 영역과 비슷하게 그룹1은 77.6%가, 그룹2와 그룹3은 각각 50%, 43.2%가 ‘잘한다’ 이상으로 평가하였다. 주목할 만한 점은 원어민 영어교사의 쓰기 교수가 그룹1의 경우 중학교(74.5%) 보다는 고등학교(84%)에서 더 높게 평가한 반면, 그룹2는 중학교(54.4%)가 고등학교(30%)보다, 그룹3 또한 중학교(56%)가 고등학교(37.5%)보다 더욱 효과적일 것이라고 응답한 점이다.

<표 IV-43> 원어민 영어교사에 대한 쓰기 영역 교수평가

(단위: %)

구분	그룹1			그룹2			그룹3		
	1)중	2)고	1)+2)	3)중	4)고	3)+4)	5)중	6)고	5)+6)
잘한다+매우 잘한다	74.5	84.0	77.6	54.3	30.0	50.0	56.0	37.5	43.2
보통이다	19.6	16.0	18.4	39.1	30.0	37.5	36.0	42.9	40.7
못한다+매우 못한다	3.9	0.0	2.6	6.5	40.0	12.5	4.0	16.1	12.3

⑤ 문법

문법 영역의 경우 그룹1은 ‘잘한다’ 이상에 56.6%로 응답한 반면, 그룹2와 그룹3은 각각 21.4%, 8.6%가 응답하였다. 주목할 만한 점으로는 그룹1은 ‘잘한다’ 이상의 응답 중에 중, 고등학교 간에 큰 차이가 없으나, 그룹2는 중학교(26.1%)와 고등학교(0%)간에 격차가 벌어진 것을 알 수 있다.

<표 IV-44> 원어민 영어교사에 대한 문법 영역 교수평가

(단위: %)

구분	그룹			그룹2			그룹3		
	1)중	2)고	1)+2)	3)중	4)고	3)+4)	5)중	6)고	5)+6)
잘한다+매우 잘한다	54.9	60.0	56.6	26.1	0.0	21.4	12.0	7.1	8.6
보통이다	29.4	24.0	27.6	37.0	40.0	37.5	52.0	50.0	50.6
못한다+매우 못한다	9.8	16.0	11.8	37.0	60.0	41.1	36.0	39.3	38.3

⑥ 어휘

어휘 영역의 경우 그룹1은 ‘잘한다’ 이상에 88.2%로 응답한 반면, 그룹2와 그룹3은 각각 57.1%, 37%가 응답하였다. 중, 고등학교로 구분하였을 때 그룹2는 ‘잘한다’ 이상의 응답 중에 중학교(63%)와 고등학교(30%)간의 차이가 다른 그룹1, 그룹3에 비해 많이 나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IV-45> 원어민 영어교사에 대한 어휘 영역 교수평가

(단위: %)

구분	그룹1			그룹2			그룹3		
	1)중	2)고	1)+2)	3)중	4)고	3)+4)	5)중	6)고	5)+6)
잘한다+매우 잘한다	88.2	88.0	88.2	63.0	30.0	57.1	36.0	37.5	37.0
보통이다	11.8	8.0	10.5	30.4	50.0	33.9	52.0	46.4	48.1
못한다+매우 못한다	0.0	4.0	1.3	6.5	20.0	8.9	12.0	10.7	11.1

⑦ 발음

발음 영역의 경우 세 그룹 모두 ‘잘한다’ 이상에 각각 96.1%, 87.5%, 85.2%를 나타내 원어민 영어교사가 발음 영역을 가르치면 매우 효과적인 것이라고 응답하였다.

<표 IV-46> 원어민 영어교사에 대한 발음 영역 교수평가

구분	그룹1	그룹2	그룹3
잘한다+매우 잘한다	96.1%	87.5%	85.2%
보통이다	3.9%	10.7%	11.1%
못한다+매우 못한다	0.0%	1.8%	1.2%

⑧ 영어권 문화

영어권 문화 영역의 경우 각 그룹은 ‘잘한다’ 이상에 각각 92.1%, 73.2%, 72.8%를 나타내 원어민 영어교사가 영어권 문화를 가르치면 매우 효과적인 것이라고 응답하였다.

<표 IV-47> 원어민 영어교사에 대한 영어권 문화 영역 교수평가

구분	그룹1	그룹2	그룹3
잘한다+매우 잘한다	92.1%	73.2%	72.8%
보통이다	6.6%	19.6%	18.5%
못한다+매우 못한다	0.0%	7.1%	7.4%

위의 결과를 바탕으로 설문지의 네 번째 문항을 종합하여 리커트 척도(Likert Scale)를 사용한 평균(Mean)으로 순위를 정리하면 아래의 표와 같은데 세 그룹 간에 원어민 영어교사의 영역별 교수능력 평가 순위는 비슷하였으며 그 중 공통적으로 가장 평가가 높은 영역 4가지는 발음, 말하기, 영어권 문화, 듣기이며, 문법영역이 가장 낮게 평가되었다.

<표 IV-48> 원어민 영어교사의 영역별 교수능력 평가 (그룹별 영역 순위)

그룹	영역별 순위 → → → →							
	1순위						8순위	
그룹1	말하기	발음	영어권 문화	듣기	어휘	쓰기	읽기	문법
그룹2	발음	말하기	듣기	영어권 문화	어휘	읽기	쓰기	문법
그룹3	발음	말하기	영어권 문화	듣기	어휘	쓰기	읽기	문법

4. 비원어민 영어교사에 대한 평가

1) 교수행동 평가

설문지의 다섯 번째 문항은 총 8개의 소문항으로 구성되었으며 제시된 비원어민 영어교사의 특징에 대하여 그룹1의 경우에는 같이 근무하고 있는 비원어민 영어교사의 동료 평가(peer-assessment)를, 그룹2와 그룹3의 경우에는 비원어민 영어교사로서의 본인 평가(self-assessment)를 하도록 고안되었다. 설문지는 각 보기마다 응답한 비율을 통해 분석하였다.

① 영어 문법을 “설명” 할 수는 있지만 영어로 “대화” 하는 것은 부족하다.

그룹1의 경우에는 동의 및 매우 동의하는 의견이 56.6%로, 그룹2의 26.8%, 그룹3의 18.5% 보다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그룹3의 경우 매우 반대 혹은 반대하는 의견이 전체의 45.6%으로 그룹2의 28.6% 보다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표 IV-49> 비원어민 영어교사에 대한 교수행동 평가(소문항1)

구분	그룹1	그룹2	그룹3
동의한다+매우 동의한다	56.6%	26.8%	18.5%
보통이다	25.0%	44.6%	35.8%
반대한다+매우 반대한다	18.4%	28.6%	45.7%

② 학생들의 영어학습에 대한 실질적인 욕구와 목표에 대해 잘 이해하고 반응한다.

동의 및 매우 동의하는 의견의 합을 살펴보았을 때 그룹1은 52.6%, 그룹2는 60.7%, 그룹3은 70.4%로 나타났다.

<표 IV-50> 비원어민 영어교사에 대한 교수행동 평가(소문항2)

구분	그룹1	그룹2	그룹3
동의한다+매우 동의한다	52.6%	60.7%	70.4%
보통이다	32.9%	32.1%	28.4%
반대한다+매우 반대한다	14.5%	7.1%	1.2%

③ 좀 더 실제 상황에 잘 적용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authentic) 자료를 통해 영어를 가르칠 필요가 있다.

동의 및 매우 동의하는 의견의 합을 보았을 때, 그룹2(71.4%)와 그룹3(74.1%)이 그룹1(55.3%)에 비해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다른 그룹과는 달리 그룹2에서 중학교(67.4%)와 고등학교(90%)간에 차이가 많이 나타난다.

<표 IV-51> 비원어민 영어교사에 대한 교수행동 평가(소문항3)

(단위: %)

구분	그룹1			그룹2			그룹3		
	1)중	2)고	1)+2)	3)중	4)고	3)+4)	5)중	6)고	5)+6)
동의한다+매우 동의한다	52.9	60.0	55.3	67.4	90.0	71.4	80.0	71.4	74.1
보통이다	31.4	36.0	32.9	30.4	10.0	26.8	12.0	23.2	19.8
반대한다+매우 반대한다	15.7	4.0	11.8	2.2	0.0	1.8	8.0	5.4	6.2

④ 학생들이 겪을 영어 학습상의 어려움에 대하여 예상하고, 미리 방지할 수 있다.

그룹1, 그룹2, 그룹3 모두 동의 혹은 매우 동의에 각각 56.6%, 67.9%, 66.7%가 응답하였다. 비원어민 영어교사들이 학생들의 영어 학습상의 어려움에 대하여 예상, 방지 할 수 있는 능력은 중, 고등학교를 비교해 보았을 때, 세 그룹 모두 중학교에서 더욱 발휘될 수 있다고 응답하였다.

<표 IV-52> 비원어민 영어교사에 대한 교수행동 평가(소문항4)

(단위: %)

구분	그룹1			그룹2			그룹3		
	1)중	2)고	1)+2)	3)중	4)고	3)+4)	5)중	6)고	5)+6)
동의한다+매우 동의한다	64.7	40.0	56.6	69.6	60.0	67.9	76.0	62.5	66.7
보통이다	7.8	52.0	22.4	23.9	20.0	23.2	24.0	33.9	30.9
반대한다+매우 반대한다	7.8	8.0	7.9	6.5	20.0	8.9	0.0	3.6	2.5

⑤ 수업시간에 학생들이 말하기를 장려하기 보다는 주로 선생님이 대부분의 시간을 말한다.

그룹1, 그룹2, 그룹3 모두 동의 혹은 매우 동의에 각각 44.7%, 35.7%, 53.1%가 응답하였다. 주목할 만한 부분은 현재 같은 학교 내에서 원어민 영어교사와 팀티칭을 하고 있지 않은 그룹3은 팀티칭을 하고 있는 그룹2보다 본 항목에 대하여 더욱 동의하고 있다는 점이다. 또한 세 그룹 모두 중학교에서 보다는 고등학교에서 교사가 대부분의 시간을 말하고 있다고 응답 하였다.

<표 IV-53> 비원어민 영어교사에 대한 교수행동평가(소문항5)

(단위: %)

구분	그룹1			그룹2			그룹3		
	1)중	2)고	1)+2)	3)중	4)고	3)+4)	5)중	6)고	5)+6)
동의한다+매우 동의한다	43.1	48.0	44.7	32.6	50.0	35.7	36.0	60.7	53.1
보통이다	37.3	36.0	36.8	41.3	40.0	41.1	40.0	23.2	28.4
반대한다+매우 반대한다	17.6	12.0	15.8	26.1	10.0	23.2	24.0	16.1	18.5

⑥ 언어 학습전략에 대하여 효율적으로 가르칠 수 있다.

그룹1, 그룹2, 그룹3 모두 동의 혹은 매우 동의에 42.1%, 53.6%, 55.6% 응답하였다. 그룹2와 그룹3을 중, 고등학교로 나누어 보았을 때, 중학교가 고등학교보다 본 항목에 대해 더욱 동의하는 것으로 집계되었는데 특히 그룹2의 경우에는 중학교(58.7%)와 고등학교(30%) 간의 차이가 28.7% 벌어져 중학

교에서 언어 학습전략에 대해 더욱 효율적으로 가르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IV-54> 비원어민 영어교사에 대한 교수행동 평가(소문항6)

(단위: %)

구분	그룹1			그룹2			그룹3		
	1)중	2)고	1)+2)	3)중	4)고	3)+4)	5)중	6)고	5)+6)
동의한다+매우 동의한다	41.2	44.0	42.1	58.7	30.0	53.6	60.0	53.6	55.6
보통이다	54.9	40.0	50.0	34.8	50.0	37.5	40.0	42.9	42.0
반대한다+매우 반대한다	3.9	16.0	7.9	6.5	20.0	8.9	0.0	3.6	2.5

⑦ 다른 방법에 비해 전통적인 교수방법을 선호한다.

그룹1은 73.7%가 동의하여 비원어민 영어교사가 전통적인 교수방법을 선호한다고 비교적 강하게 생각하는 반면에, 그룹2와 그룹3은 각각 46.4%, 35.8%가 동의해 그보다는 낮은 결과를 나타내었다.

<표 IV-55> 비원어민 영어교사에 대한 교수행동 평가 (소문항7)

구분	그룹1	그룹2	그룹3
동의한다+매우 동의한다	73.7%	46.4%	35.8%
보통이다	15.8%	32.1%	38.3%
반대한다+매우 반대한다	10.5%	21.4%	25.9%

⑧ 학생들에게 영어를 공부하는 학습자로서의 모델이 될 수 있다.

그룹1은 19.7%가 동의한 반면, 그룹2와 그룹3은 각각 57.1%, 63%를 동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 고등학교별로 살펴보았을 때 그룹1의 경우에는 고등학교(8%)가 중학교(25.5%) 보다 낮게 나타났고, 그룹2의 경우에도 고등학교(40%)가 중학교(60.9%) 보다 낮게 나타났다.

<표 IV-56> 비원어민 영어교사에 대한 교수행동 평가 (소문항8)

(단위: %)

구분	그룹1			그룹2			그룹3		
	1)중	2)고	1)+2)	3)중	4)고	3)+4)	5)중	6)고	5)+6)
동의한다+매우 동의한다	25.5	8.0	19.7	60.9	40.0	57.1	64.0	62.5	63.0
보통이다	47.1	68.0	53.9	32.6	30.0	32.1	32.0	33.9	33.3
반대한다+매우 반대한다	27.5	24.0	26.3	6.5	30.0	10.7	4.0	3.6	3.7

설문지의 다섯 번째 문항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분석결과 그룹1이 그룹2와 그룹3 모두 보다 높거나 낮은 경우로 분석할 수 있다.

<표 IV-57> 비원어민 영어교사에 대한 교수평가

(그룹1>그룹2, 그룹3 vs 그룹1<그룹2, 그룹3)

구분	특성
그룹1 > 그룹2, 그룹3	영어 문법을 “설명”할 수는 있지만 영어로 “대화”하는 것은 부족하다. 수업시간에 학생들이 말하기를 장려하기 보다는 선생님이 대부분 말한다. 다른 방법에 비해 전통적인 교수방법을 선호한다.
그룹1 < 그룹2, 그룹3	학생들의 영어 학습에 대한 실질적인 욕구와 목표에 대해 잘 이해하고 반응한다. 실제 상황에 잘 적용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자료를 통해 가르칠 필요가 있다. 학생들이 겪을 영어 학습상의 어려움에 대하여 예상 및 방지해 줄 수 있다. 언어 학습전략에 대하여 효율적으로 가르칠 수 있다. 학생들에게 영어를 공부하는 학습자로서의 모델이 될 수 있다.

한편, 같은 비원어민 영어교사이지만 원어민 영어교사의 재직 유무를 기준으로 나눈 그룹2와 그룹3 사이에서도 서로 높거나 낮게 평가한 것을 아래와 같이 알 수 있다.

<표 IV-58> 비원어민 영어교사에 대한 교수평가 (그룹2>그룹3 vs 그룹2<그룹3)

구분	특성
그룹2>그룹3	영어 문법을 “설명”할 수는 있지만 영어로 “대화”하는 것은 부족하다.
	좀 더 실제 상황에 잘 적용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자료를 통해 영어를 가르칠 필요가 있다.
	다른 방법에 비해 전통적인 교수방법을 선호한다.
그룹2<그룹3	학생들의 영어 학습에 대한 실질적인 욕구와 목표에 대해 잘 이해하고 반응한다.
	학생들이 겪을 영어 학습상의 어려움에 대하여 예상하고, 미리 방지해 줄 수 있다.
	수업시간에 학생들이 말하기를 장려하기 보다는 주로 선생님이 대부분의 시간을 말한다.
	언어 학습전략에 대하여 효율적으로 가르칠 수 있다.
	학생들에게 영어를 공부하는 학습자로서의 모델이 될 수 있다.

2) 각 영역별 교수평가

설문지의 여섯 번째 문항은 총 8개의 소문항으로 구성되었으며 제시된 영어교육의 교수영역(말하기, 듣기, 읽기, 쓰기, 문법, 어휘, 발음, 영어권 문화)에 대하여 그룹1의 경우에는 같이 근무하고 있는 비원어민 영어교사에 대한 동료평가(peer-assessment)를, 그룹2와 그룹3의 경우에는 비원어민 영어교사로서의

본인 평가(self-assessment)를 하도록 고안되었다.

① 말하기

그룹1, 그룹2, 그룹3 중 각각 48.7%, 55.4%, 54.3%가 ‘보통’ 이라고 응답하였다. 그룹2와 그룹3의 ‘잘한다’ 이상의 평가를 보면 중학교 보다는 고등학교가 높은 평가를 내린 것을 알 수 있다.

<표 IV-59> 비원어민 영어교사에 대한 말하기 영역 교수평가

(단위: %)

구분	그룹1			그룹2			그룹3		
	1)중	2)고	1)+2)	3)중	4)고	3)+4)	5)중	6)고	5)+6)
잘한다+매우 잘한다	29.4	24.0	27.6	30.4	40.0	32.1	28.0	39.3	35.8
보통이다	52.9	40.0	48.7	58.7	40.0	55.4	60.0	51.8	54.3
못한다+매우 못한다	13.7	28.0	18.4	8.7	20.0	10.7	8.0	8.9	8.6

② 듣기

그룹1, 그룹2, 그룹3은 각각 55.3%, 46.4%, 60.5%가 ‘잘한다’ 이상이라고 응답하여 말하기 영역 보다는 높은 결과가 나타났다. 듣기 영역도 말하기 영역과 마찬가지로 그룹2와 그룹3의 ‘잘한다’ 이상의 평가를 보면 중학교 보다는 고등학교가 높은 평가를 내린 것을 알 수 있다.

<표 IV-60> 비원어민 영어교사에 대한 듣기 영역 교수평가

(단위: %)

구분	그룹1			그룹2			그룹3		
	1)중	2)고	1)+2)	3)중	4)고	3)+4)	5)중	6)고	5)+6)
잘한다+매우 잘한다	54.9	56.0	55.3	43.5	60.0	46.4	56.0	62.5	60.5
보통이다	39.2	28.0	35.5	50.0	30.0	46.4	32.0	35.7	34.6
못한다+매우 못한다	2.0	12.0	5.3	4.3	10.0	5.4	8.0	1.8	3.7

③ 읽기

그룹1, 그룹2, 그룹3은 각각 77.6%, 80.4%, 77.8%가 ‘잘한다’ 이상이라고 응답하였다. ‘잘한다’ 이상의 평가를 보면 그룹2는 비슷한 반면 그룹3은 중학교 보다는 고등학교가 높은 평가를 내린 것을 알 수 있다.

<표 IV-61> 비원어민 영어교사에 대한 읽기 영역 교수평가

(단위: %)

구분	그룹1			그룹2			그룹3		
	1)중	2)고	1)+2)	3)중	4)고	3)+4)	5)중	6)고	5)+6)
잘한다+매우 잘한다	78.4	76.0	77.6	80.4	80.0	80.4	68.0	82.1	77.8
보통이다	17.6	12.0	15.8	17.4	20.0	17.9	28.0	17.9	21.0
못한다+매우 못한다	0.0	8.0	2.6	0.0	0.0	0.0	0.0	0.0	0.0

④ 쓰기

그룹1은 비원어민 영어교사가 쓰기 영역을 잘 가르친다고 63.2%가 대답한 반면에 그룹2와 그룹3은 각각 39.3%, 48.1%가 응답하였다. 비원어민 영어교사의 쓰기영역 교수에 대해 원어민 영어교사가 비원어민 영어교사보다 더욱 높이 평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IV-62> 비원어민 영어교사에 대한 쓰기 영역 교수평가

구분	그룹1	그룹2	그룹3
잘한다+매우 잘한다	63.2%	39.3%	48.1%
보통이다	22.4%	42.9%	43.2%
못한다+매우 못한다	10.5%	16.1%	7.4%

⑤ 문법

그룹1, 그룹2, 그룹3 모두 비원어민 영어교사의 문법 교수에 대하여 ‘잘한다’ 이상에 85.5%, 85.7%, 71.6%로 평가하였다. 특히, 그룹2와 그룹3은 중학교에 비해 고등학교에서 높게 평가한 것을 알 수 있다.

<표 IV-63> 비원어민 영어교사에 대한 문법 영역 교수평가

(단위: %)

구분	그룹1			그룹2			그룹3		
	1)중	2)고	1)+2)	3)중	4)고	3)+4)	5)중	6)고	5)+6)
잘한다+매우 잘한다	84.3	88.0	85.5	82.6	100.0	85.7	64.0	75.0	71.6
보통이다	11.8	8.0	10.5	15.2	0.0	12.5	32.0	25.0	27.2
못한다+매우 못한다	0.0	0.0	0.0	0.0	0.0	0.0	0.0	0.0	0.0

⑥ 어휘

그룹1, 그룹2, 그룹3이 ‘잘한다’ 이상에 각각 비슷하게 69.7%, 66.1%, 66.7%로 평가를 내렸다.

<표 IV-64> 비원어민 영어교사에 대한 어휘 영역 교수평가

구분	그룹1	그룹2	그룹3
잘한다+매우 잘한다	69.7%	66.1%	66.7%
보통이다	23.7%	30.4%	32.1%
못한다+매우 못한다	2.6%	1.8%	0.0%

⑦ 발음

그룹1, 그룹2, 그룹3 중 각각 48.7%, 44.6%, 45.7%가 보통이라고 평가하였다. 그러나 그룹1은 ‘잘한다’ 이상에 17.1%, 그룹2와 그룹3은 각각 42.9%, 46.9%를 응답하여 차이를 나타냈다. 그룹3은 중, 고등학교 간에 ‘잘한다’ 이상의 평가에서 고등학교 집단이 21.6% 더 높게 평가한 것을 알 수 있다.

<표 IV-65> 비원어민 영어교사에 대한 발음 영역 교수평가

(단위: %)

구분	그룹1			그룹2			그룹3		
	1)중	2)고	1)+2)	3)중	4)고	3)+4)	5)중	6)고	5)+6)
잘한다+매우 잘한다	17.6	16.0	17.1	43.5	40.0	42.9	32.0	53.6	46.9
보통이다	51.0	44.0	48.7	50.0	20.0	44.6	56.0	41.1	45.7
못한다+매우 못한다	27.5	36.0	30.3	4.3	40.0	10.7	8.0	5.4	6.2

⑧ 영어권 문화

그룹1, 그룹2, 그룹3 중 각각 43.4%, 41.1%, 53.1%가 보통이라고 평가하였다. 그러나 그룹1의 경우 ‘잘한다’ 이상에 19.7%, 그룹2와 그룹3의 경우에는 48.2%, 40.7%로 응답하였다.

<표 IV-66> 비영어권 영어교사에 대한 영어권 문화 영역 교수평가

구분	그룹1	그룹2	그룹3
잘한다+매우 잘한다	19.7%	48.2%	40.7%
보통이다	43.4%	41.1%	53.1%
못한다+매우 못한다	28.9%	8.9%	4.9%

여섯 번째 문항의 분석결과 전반적으로 발음과 영어권 문화 영역을 제외하고는 세 그룹 간에 큰 차이를 보이지는 않았고, 그룹2는 그룹3보다 읽기와 문법 영역만 높게 평가하고 나머지는 같거나 낮게 평가하였다. 세 그룹 모두 문법, 읽기, 어휘 영역에는 높은 평가를 내렸다. 그룹1의 경우 말하기, 영어권 문화, 발음의 세 영역에 매우 낮은 점수를 주었고, 다른 영역에는 보통 이상의 평가를 내려 영역별로 차이가 뚜렷한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발음영역의 경우 그룹1은 가장 낮은 평가를 내렸다. 그룹2와 그룹3은 말하기를 가장 낮게 평가하였지만 그룹1보다는 높았으며, 그룹2의 경우 8개의 영역 중 3개의 영역에만 보통 이상의 평가를 하였고, 그룹3은 4개의 영역에만 보통 이상의 평가를 한 것을 보아 원어권 영어교사가 문항4에서 전 영역에 걸쳐 자신의 평가를 높게 했던 것과 다소 차이를 보인다.

아래의 표는 리커트 척도(Likert Scale)를 사용하여 평균(Mean)값을 기준으로

순위를 매긴 것인데 세 그룹간에 원어민 영어교사의 영역별 교수능력 평가 순위가 높은 영역들(문법, 읽기, 어휘, 듣기)은 순위가 크게 차이 나지 않았지만, 쓰기, 발음, 영어권 문화, 말하기 영역의 경우 순위에서 약간의 차이가 있었다.

<표 IV-67> 비원어민 영어교사의 영역별 교수능력 평가 (그룹별 영역 순위)

그룹	영역별 순위							
	1순위			→ → → →			8순위	
그룹1	문법	어휘	읽기	쓰기	듣기	말하기	영어권 문화	발음
그룹2	문법	읽기	어휘	듣기	영어권 문화	발음	쓰기	말하기
그룹3	문법	읽기	어휘	듣기	발음	쓰기	영어권 문화	말하기

좀 더 자세히 중, 고등학교를 분리하여 분석하였을 때 본 문항에서는 그룹별로 주목할 만한 결과가 특별히 없었으나, 그룹3 내에서 어휘 영역만 제외한 전 영역에서 고등학교에서 중학교 보다 높이 평가 한 사실이 도출되었다.

<표 IV-68> 그룹3의 중, 고등학교간의 상이한 결과

영역	그룹3	
	중학교	고등학교
말하기	28.0%	39.3%
듣기	56.0%	62.5%
읽기	68.0%	82.1%
쓰기	44.0%	50.0%
문법	64.0%	75.0%
어휘	76.0%	62.5%
발음	32.0%	53.6%
영어권 문화	28.0%	46.4%

5. 원어민 영어교사와 비원어민 영어교사의 영어교수방법

1) 가장 중점을 두는 영어교수 영역

설문지의 일곱 번째 문항은 그룹1, 그룹2, 그룹3 모두에게 영어 교수영역 8가지 중에서 가장 중점을 두는 영역 세 가지를 선택하도록 고안되었다. 분석결과 그룹1은 그룹2, 그룹3과 확연한 차이를 보였다. 그룹1은 말하기, 듣기, 어휘 영역에, 그룹2와 그룹3은 읽기, 문법, 어휘, 영역에 가장 중점을 두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 그룹 공통적으로 영어권 문화, 쓰기, 발음 모두 중점적인 영역은 아니라고 응답하여 현 영어교육에 세 영역에서는 결손이 생길 가능성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그룹2와 그룹3의 경우 중점을 두는 영역이 어휘와 영어권 문화 영역을 제외하고는 원어민 영어교사의 재직 유무와는 상관없이 거의 비슷한 결과를 나타냈다. 다만, 그룹3이 그룹2보다 어휘를 더욱 강조하였고, 그룹2가 그룹3보다 듣기를 더욱 강조한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말하기 영역에 관한 답변을 보았을 때 그룹2와 그룹3 사이에 큰 차이가 없는 것을 보아, 말하기 영역에 관한 한 비원어민 영어교사들은 원어민 영어교사의 재직 유무와는 상관없이 수업 시 중점을 적게 두는 것으로 나타나 원어민 영어교사의 배치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함을 시사한다. 이와 더불어 쓰기 영역은 세 그룹 모두에서 최 하위권에 머물러 있다. 쓰기 교육이 강조되어 가는 추세와는 다르게 수업 시간에 중점을 두고 있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IV-69> 가장 중점을 두는 영어교수 영역(그룹별 영역 순위)

그룹	중점을 두는 영역							
	1순위	→ → → →						8순위
그룹1	말하기 (31.7)	듣기 (22.9)	어휘 (11.0)	읽기 (9.6)	발음 (7.8)	문법 (6.9)	쓰기 (5)	영어권 문화(3.2)
그룹2	읽기 (28.7)	문법 (20.4)	듣기 (16.8)	어휘 (14.4)	말하기 (9.6)	쓰기 (5.4)	발음 (3.6)	영어권 문화(1.2)
그룹3	읽기 (28.2)	어휘 (19.2)	문법 (18.4)	듣기 (12.7)	말하기 (11)	영어권 문화(4.1)	쓰기 (3.3)	발음 (3.3)

(괄호 안의 값은 전체에서 각 영역이 차지하는 비율)

2) 영어교수의 형태 및 효과적인 수업 형태

설문지의 여덟 번째 문항은 그룹1, 그룹2, 그룹3 모두에게 현재의 수업 형태가 단독수업, 부분적인 협동수업, 완전한 협동수업 중 어떤 것인지 응답하고, 세 가지 형태 중 가장 효과적일 것으로 기대되는 수업 형태는 어떤 것인지 선택하도록 고안되었다. 현재 진행 중인 수업 형태에 관한 질문에서 그룹3은 원어인 영어교사가 학교에 재직하고 있지 않으므로 단독수업이 100% 진행되고 있고, 그룹2의 경우에는 부분적인 팀티칭이 67.9%로 가장 많았으며 그룹1의 경우에는 부분적인 팀티칭이 48.7%, 완전한 팀티칭이 40.8%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그룹1과 그룹2의 경우 중학교에 비해서 고등학교가 단독수업을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IV-70> 현재 진행 중인 수업 형태 (그룹별)

구분	그룹1			그룹2			그룹3		
	1)중	2)고	1)+2)	3)중	4)고	3)+4)	5)중	6)고	5)+6)
단독수업	5.9	20.0	10.5	19.6	30.0	21.4	100	100	100
팀티칭	45.1	32.0	40.8	10.9	10.0	10.7	0.0	0.0	0.0
부분적인 팀티칭	49.0	48.0	48.7	69.6	60.0	67.9	0.0	0.0	0.0

가장 효과적인 수업 형태에 관한 질문에서 그룹1의 경우에는 원어민 영어교사와 비원어민 영어교사가 같이 완전한 팀티칭을 하는 형태가 가장 좋다고 56.6%가 응답하였으나 그룹2와 그룹3은 각각 52.2%와 53.1%가 부분적인 팀티칭을 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중학교 보다는 고등학교에서 단독수업을 원하는 비율이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표 IV-71> 효과적일 것으로 기대되는 수업 형태 (그룹별)

구분	그룹1			그룹2			그룹3		
	1)중	2)고	1)+2)	3)중	4)고	3)+4)	5)중	6)고	5)+6)
단독수업	9.8	20.0	13.2	8.7	30.0	12.5	0.0	7.1	4.9
팀티칭	54.9	60.0	56.6	30.4	20.0	28.6	28.0	16.1	19.8
부분적인 팀티칭	29.4	12.0	23.7	52.2	50.0	51.8	52.0	53.6	53.1

3) 사용 중인 수업자료의 종류

설문지의 아홉 번째 문항은 그룹1, 그룹2, 그룹3 모두에게 현재 사용 중인 수업자료를 선택하도록 구성하였다. 그룹1의 경우 실생활 자료, 파워포인트를 이

용한 프레젠테이션, 게임 및 활동(activities), 워크시트(worksheets) 등을 가장 많이 사용하지만, 교과서를 활용한다는 의견은 중학교(16.4%)와 고등학교(7.5%) 모두 그룹2와 그룹3에 비해 낮게 나타났다. 이외에도 신문 및 책, 비디오 및 동영상, 노래 및 스토리, 소품(props) 등을 활용한다고 응답하였는데 특히 중학교의 경우 게임, 노래, 소품(props), 신문 등 다양한 수업자료를 사용하며, 고등학교는 중학교에 비해 워크시트(worksheets)를 많이 사용한다는 것을 기타 의견에서 알 수 있다. 그룹2와 그룹3의 경우에는 교과서와 오디오 테이프가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특히 교과서는 중학교 보다는 고등학교에서 더욱 집중적으로 사용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외에도 그룹2, 그룹3은 파워포인트를 이용한 프레젠테이션, 실생활 자료, 워크시트(worksheets)의 활용이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중학교에서는 고등학교에 비해 CD의 활용이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IV-72> 사용 중인 수업자료의 종류 (그룹별)

(단위: %)

구분	그룹1			그룹2			그룹3		
	1)중	2)고	1)+2)	3)중	4)고	3)+4)	5)중	6)고	5)+6)
교과서	16.4	7.5	13.6	25.7	34.8	27.4	27.8	34.8	32.5
실제 생활에서 쓰이는 자료	26.7	28.3	27.2	14.9	4.3	12.9	11.1	14.8	13.6
파워포인트를 이용한 프레젠테이션	27.6	22.6	26.0	15.8	17.4	16.1	13.0	12.2	12.4
오디오 테이프	3.4	13.2	6.5	26.7	26.1	26.6	31.5	25.2	27.2
기타	25.9	26.4	26.0	16.8	17.4	16.9	16.7	13.0	14.2

4) 영어교수실력 및 영어실력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

설문지의 열 번째 문항은 그룹1에게는 영어교수실력을, 그룹2와 그룹3에게는 영어실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을 선택하도록 고안되었다. 그룹1은 책(33.6%)과 온라인(35.5%)을 통하여 실력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었으며, 이외에도 대학원, 동료교사와의 미팅이나 워크숍 혹은 세미나 참석, 동료교사 수업 참관, 설문조사, 교사일지 작성 등의 기타 의견도 있었다. 그룹2와 그룹3의 경우에는 책, 신문, 영화 등의 콘텐츠와 온라인을 통하여 영어실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대다수가 응답하였고 기타 의견으로는 사설 학원, 연수가 있었다.

<표 IV-73> 영어교수실력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그룹1)

구분	그룹1		
	1)중	2)고	1)+2)
대학원	3.6%	7.3%	4.8%
책	33.6%	32.7%	33.3%
온라인	35.5%	38.2%	36.4%
없음	1.8%	3.6%	2.4%
기타	24.5%	18.2%	22.4%

<표 IV-74> 영어실력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그룹2, 그룹3)

구분	그룹2			그룹3		
	1)중	2)고	1)+2)	3)중	4)고	3)+4)
사설 학원	2.8	0.0	2.4	13.9	10.4	11.5
책, 신문, 영화 등의 콘텐츠	57.7	81.8	61.0	55.6	64.9	61.9
온라인	32.4	18.2	30.5	16.7	20.8	19.5
없음	0.0	0.0	0.0	2.8	0.0	0.9
기타	7.0	0.0	6.1	11.1	3.9	6.2

6. 원어민 영어교사제도

1) 원어민 영어교사로서 겪는 문제점

본 문항은 원어민 영어교사용 설문지의 문항11로서 그룹1에게만 원어민 영어교사로서 겪는 어려운 점에 대하여 응답하도록 고안되었다. 설문 결과 원어민 영어교사가 근무하면서 겪는 어려움 중에 가장 큰 부분은 중학교(37.2%), 고등학교(38.9%) 모두 언어장벽(language barrier)인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동료 교사의 비협조적인 태도와 문화이해의 부족으로 생기는 오해라는 의견이 뒤따랐다. 기타 의견으로 중학교에서는 학생들의 통제와 태도(참여율 저조, 외국인에 대한 비호감)를, 고등학교에서는 비효율적인 교육과정 및 교육정책을 가장 많이 손꼽았으며 이외에도 교실 내 많은 학생 수, 교육 기자재 부족 및 시설의 낙후, 고독함, 수업준비 시간 부족 등의 의견이 뒤를 이었다.

<표 IV-75> 원어민 영어교사로서 겪는 문제점 (그룹1)

구분	그룹1					
	1)중		2)고		1)+2)	
	%	명	%	명	%	명
문화이해의 부족 (cultural misunderstanding)	18.1	17	11.1	6	15.5	23
언어의 장벽 (language barrier)	37.2	35	38.9	21	37.8	56
동료 교사의 비협조적인 태도 (non-cooperation of other teachers and staff)	14.9	14	18.5	10	16.2	24
잡다한 업무 (miscellaneous duties)	4.3	4	13.0	7	7.4	11
기타	25.5	24	18.5	10	23.0	34

<표 IV-76> 원어민 영어교사로서 겪는 문제점-기타의견 (그룹1)

구분	그룹1					
	1)중		2)고		1)+2)	
	%	명	%	명	%	명
학생들의 태도 및 통제	26.9	7	15.4	2	23.1	9
한 교실 내 많은 학생 수	11.5	3	15.4	2	12.8	5
비효율적인 교육과정 및 교육정책	15.4	4	23.1	3	17.9	7
교육 기자재 부족 및 시설의 낙후	11.5	3	0.0	0	7.7	3
수업준비 시간 부족	0.0	0	15.4	2	5.1	2
고독함	3.8	1	15.4	2	7.7	3
입시 위주의 수업 분위기	0.0	0	7.7	1	2.6	1
문제없음	7.7	2	0.0	0	5.1	2

2) 비원어민 영어교사의 수업에 미치는 영향

본 문항은 비원어민 영어교사용 설문지의 문항11로서 그룹2와 그룹3에게만 원어민 영어교사가 본인의 수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응답하도록 고안되었다. 두 그룹의 입장 차이가 두드러지지 않는다고, 그룹2와 그룹3 각각 영어나 영어권 문화에 대하여 도움을 받을 수 있으므로 매우 긍정적이라고 75%, 64.2%가 응답하였다. 반면, 현실적으로 원어민과 비원어민 영어교사가 가르치는 분야가 다르므로 본인의 수업에는 상관없다는 의견도 각각 25%, 30.9%가 응답하였다. 영어로 대화해야 하는 등의 부담감으로 차라리 원어민 교사가 없는 편이 낫다고 응답한 경우는 그룹2는 없었고, 그룹3은 2.5%정도로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IV-77> 원어민 영어교사가 수업에 미치는 영향 (그룹2, 그룹3)

의견	그룹2	그룹3
영어나 영어권 문화에 대하여 도움을 받을 수 있으므로 매우 긍정적이다.	75.0%	64.2%
현실적으로 원어민 영어교사와 비원어민(한국인) 영어교사가 가르치는 분야가 다르므로 상관없다.	25.0%	30.9%
영어로 대화해야 하는 등의 부담감으로 차라리 원어민 영어교사가 없는 편이 낫다.	0.0%	2.5%

3) 원어민 영어교사의 배치

본 문항은 비원어민 영어교사용 설문지의 문항12로서 그룹2와 그룹3에게만 실시하였으며, 빠른 시일 내에 원어민 영어교사를 중등학교에 배치하겠다는 교육인적자원부의 의견에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고안되었다. 그룹2와 그룹3 모두 적극적으로 찬성하며 빠른 시일 내에 시행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각각 57.1%, 50.6%로 가장 많았다. 반면에 방침 자체에는 우호적이지만 가시적으로 실효성을 거두기는 어렵다고 응답한 경우도 32.1%, 43.2%로 나타났다. 이러한 응답의 이유에는 중, 고등학교별로 각각 다르게 나타났는데 중학교의 경우 비원어민 영어교사의 연수가 우선적으로 되어야 한다(27.3%)는 의견과 교실 내 많은 학생 수(18.2%), 원어민 영어교사의 자질 부족(18.2%)을 손꼽았다. 고등학교의 경우 입시위주의 상황에 부합되지 않는다(21.7%)는 의견과 원어민 영어교사의 자질 부족(21.7%)이 가장 많았고, 평가가 곤란(13%)하며 효과가 아직 입증되지 않았다(13%)는 의견이 있었다. 기타 의견으로는 교과서 진도에 맞추기 어렵고, 학생수준 격차가 더욱 심화 된다는 것이 지적되었다.

<표 IV-78> 원어민 영어교사의 배치에 대한 의견(그룹2, 그룹3)

의견	그룹2	그룹3
적극적으로 찬성하고 빠른 시일 내에 시행되어야 한다.	57.1%	50.6%
방침 자체에는 우호적이지만 가시적으로 실효성을 거두기는 어렵다.	32.1%	43.2%
현 영어교육 실정에는 큰 무리가 따른다.	10.7%	4.9%

<표 IV-79> 실효성을 거두기 어렵다는 의견에 대한 이유(그룹2, 그룹3)

의견	그룹2+그룹3		
	1)중	2)고	1)+2)
평가곤란	9.1%	13.0%	11.8%
교과서 진도	9.1%	4.3%	5.9%
많은 학생 수	18.2%	4.3%	8.8%
한국문화와 교육에 대한 이해부족	9.1%	0.0%	2.9%
자질 부족	18.2%	21.7%	20.6%
비원어민교사 연수 우선	27.3%	0.0%	8.8%
학생 수준차 더욱 심해짐	9.1%	8.7%	8.8%
입시위주의 상황에 부합되지 않음	0.0%	21.7%	14.7%
효과가 입증되지 않아서	0.0%	13.0%	8.8%
재정적 문제	0.0%	8.7%	5.9%
원어민 영어교사의 재교육(연수) 필요함	0.0%	4.3%	2.9%

4) 이상적인 원어민 영어교사의 비율

본 문항은 비원어민 영어교사용 설문지의 문항13 으로서 그룹2와 그룹3에게만 실시하였으며, 만약 본인이 교장이 되어 원어민 영어교사를 고용한다면 원어민 영어교사와의 비율이 어느 정도가 되면 가장 효율적일 것인지를 중학교

와 고등학교로 나누어 응답하도록 고안되었다. 본 항목은 중학교, 고등학교 모두 표시해야 하는데 재직 중인 곳에만 표시하는 경우가 많아 무응답인 경우가 다수 도출되어 결과에 제한적인 면이 있음을 밝힌다. 중학교의 경우에는 그룹 2와 그룹3 모두 각 학년에 1명, 즉 전체 3명이 적절하다고 55.4%, 44.4%가 응답하였다. 고등학교의 원어민 영어교사 배치에 대한 의견은 중학교와 비슷하게 나타났는데 그룹2와 그룹3 모두 각 학년에 1명 있는 것이 32.1%, 40.7%가 좋다고 응답하였다. 요약하자면, 중학교나 고등학교에 상관없이 원어민 영어교사가 각 학교에 학년별 1명, 즉 총 3명 정도가 근무하는 것이 좋다고 응답하였다.

<표 IV-80> 이상적인 원어민 영어교사의 비율(중학교)

비율	그룹1	그룹2
전체 1-2명	30.4%	19.8%
각 학년에 1명(=전체 3명)	55.4%	44.4%
각 학년에 2명 (=전체 6명)	8.9%	19.8%
기타	0.0%	0.0%
무응답	5.4%	16.0%

<표 IV-81> 이상적인 원어민 영어교사의 비율(고등학교)

비율	그룹1	그룹2
전체 1-2명	25.0%	22.2%
각 학년에 1명(=전체 3명)	32.1%	40.7%
각 학년에 2명 (=전체 6명)	10.7%	21.0%
기타	1.8%	2.5%
무응답	30.4%	13.6%

7. 만족도 및 제안

1) 원어민 영어교사

원어민 영어교사로서 현재 한국의 중, 고등학교에서 재직하는 것에 대한 만족도는 중, 고등학교에 큰 차이 없이 만족 혹은 매우 만족이라는 의견에 77.6%가 응답하였다.

<표 IV-82> 원어민 영어교사로서의 만족도(그룹1)

구분	그룹1		
	1)중	2)고	1)+2)
매우 만족한다	23.5%	36.0%	27.6%
만족한다	54.9%	40.0%	50.0%
보통이다	11.8%	16.0%	13.2%
불만족 한다.	9.8%	4.0%	7.9%
매우 불만족 한다.	0.0%	4.0%	1.3%

한편, 원어민 영어교사들은 비원어민 영어교사들이 교수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점을 보완해야 한다고 응답하였다.

첫째, 수업 시간에 영어를 좀 더 많이 사용해야 한다.

둘째, 학생들에게 좀 더 좋은 영어학습자 모델이 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셋째, 해외 연수나 여행을 통하여 영어실력 향상과 영어권 문화에 대한 이해를 높여야 한다.

넷째, 수업을 좀 더 재미있게 만들기 위해서 다양한 방법을 시도해야 한다.

다섯째, 학생들의 참여를 이끌어내도록 수업방식을 바꾸어야 한다.

여섯째, 협동수업을 할 때 한국말로 해석이나 학생들 통제 이상의 좀 더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

이외에도 좀 더 실질적인(authentic) 수업자료의 사용, 정확한 발음의 사용, 문법 중심이 아니라 말하기, 듣기도 포함되는 수업의 진행, 좀 더 학생들의 수준에 맞는 시험 문제의 제작 등의 의견을 나타냈다.

또한 원어민 영어교사들은 원어민 영어교사제도에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의견을 제시하였다.

첫째, 좀 더 많은 수의 원어민 영어교사를 채용해야 한다.

둘째, 원어민 영어교사와 비원어민 영어교사가 효과적인 협동수업을 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방안이 제시되어야 한다.

셋째, 원어민 영어교사가 담당할 커리큘럼, 학습지도안, 수업 모형 등의 예시가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한국 교육실정에 맞는 영어수업을 할 수 있도록 제도적 마련이 되어야 한다.

넷째, 전문적인 원어민 영어교사 트레이너가 원어민 영어교사의 교육을 담당하는 효율적인 재교육이 필요하다.

이외에도 몰입교육(Emersion teaching)의 적극적인 시도, 원어민 영어교사의 적극적인 활용으로 학교 내 영어교사와 타 과목 교사의 영어실력 확대, 원어민 영어교사와 학생들을 위한 잉글리쉬 존(English zone)의 설치 및 적극적 활용, 원어민 영어교사 수업의 학생평가제도 마련 등을 기타 의견을 나타냈다.

끝으로, 원어민 영어교사들은 한국의 현 영어교육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점을 제안하였다.

첫째, 입시위주의 영어교육에서 탈피해야 한다.

둘째, 학급 규모를 축소해야 한다.

셋째, 실력 있는 비원어민 영어교사를 고용해야 한다.

넷째, 의사소통 위주의 영어교육을 실현해야 한다.

다섯째, 외국 교과서 사용 등 교재 선택에 있어서 다양성을 존중해야 한다.

여섯째, 학생들의 수준별 교육이 이행되어야 한다.

일곱째, 학생들이 좀 더 영어권 문화에 노출될 수 있도록 환경이 조성되어야 한다.

여덟째, 사교육의 축소로 공교육의 효율성을 극대화해야 한다.

이외에도 쓰기 영역의 교육 확대, 초등학교에서 고등학교까지 연계되는 영어 수업, 수업준비를 위한 시간적 여유 제공 등의 의견을 나타냈다.

2) 비원어민 영어교사

비원어민 영어교사로서 재직하는 것에 대한 만족도는 중, 고등학교에 큰 차이 없이 그룹2는 37.5%, 그룹3은 46.9%가 만족 혹은 매우 만족한다는 의견을 나타내어 원어민 영어교사보다 낮게 나타났다.

<표 IV-83> 비원어민 영어교사로서의 만족도(그룹2, 그룹3)

구분	그룹2	그룹3
매우 만족한다	1.8%	3.7%
만족한다	35.7%	43.2%
보통이다	51.8%	37.0%
불만족 한다.	10.7%	16.0%
매우 불만족 한다	0.0%	0.0%

한편, 비원어민 영어교사들은 원어민 영어교사들이 교수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점을 보완해야 한다고 응답하였다.

- 첫째, 한국문화에 대한 이해가 더욱 필요하다.
- 둘째, 한국 실정에 맞는 교수법을 연구해야 한다.
- 셋째, 한국 학생들의 실력 및 특성을 파악해야 한다.
- 넷째, 학교 시스템을 이해해야 한다.
- 다섯째, 다양한 수업 방법을 도입해야 한다.
- 여섯째, 영어(언어) 및 교육을 전공하거나 이에 관련 교육을 받아야 한다.
- 일곱째, 부분적인 한국어 사용이 가능해야 한다.

이외에도 안일한 수업태도의 변화, 학생수준에 맞는 학습지도, 학생과의 의사소통 신장, 영어권 문화교육의 확대, 다양한 기자재 활용 등을 꼽았다.

또한 비원어민 영어교사들은 원어민 영어교사제도에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의견을 제시하였다.

첫째, 수준 높은 원어민 영어교사를 선발해야 한다.

둘째, 원어민 영어교사와의 팀티칭을 효과적으로 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이 제시되어야 한다.

셋째, 원어민 영어교사를 위한 실용적인 재교육이 실시되어야 한다.

넷째, 자격 있는 원어민 영어교사 채용을 위한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다섯째, 원어민 영어교사의 수업 평가를 실시해야 한다.

끝으로, 비원어민 영어교사들은 한국의 현 영어교육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점을 제안하였다.

첫째, 학급 규모를 축소해야 한다.

둘째, 입시위주의 영어교육에서 탈피해야 한다.

셋째, 교사의 영어연수기회를 확대해야 한다.

넷째, 의사소통 위주의 영어교육을 실현해야 한다.

다섯째, 교재 선택에 있어서 다양성을 존중해야 한다.

여섯째, 학생들의 수준별 교육이 이행되어야 한다.

일곱째, 영어교사의 수업 시수를 축소시키고 수업연구를 위한 시간을 확보해야 한다.

이외에도 쓰기 영역 교육의 확대, 강압적인 영어교육 탈피, 초등학교에서 고등학교까지 연계되는 영어수업 커리큘럼 마련, 영어교사의 처우개선 등의 의견을 나타냈다.

V. 결론 및 제한점

EPIK을 통하여 본격적인 원어민 영어교사제도가 도입된 1995년 이래 많은 중, 고등학교에서는 원어민 영어교사와 비원어민 영어교사가 수업을 함께 진행하고 있다. 그러나 구체적인 수업진행 및 원어민 교사관리에 대한 대안이 미비한 상황에서 본 제도가 실시되어 현재 일선의 중, 고등학교에서는 많은 혼선이 빚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원어민 영어교사와 비원어민 영어교사의 교수행동, 교수영역, 교수방법에 대한 인식차이를 파악하여 협동수업과 원어민 영어교사제도의 효율성을 증대시키고자 현직의 중, 고등학교 영어교사 213명(원어민 영어교사 76명, 비원어민 영어교사 137명)에게 설문을 실시하였다. 설문 분석은 원어민 영어교사 집단(그룹1), 원어민 영어교사와 함께 재직 중인 비원어민 영어교사 집단(그룹2), 원어민 영어교사와 함께 재직 중이지 않은 비원어민 영어교사 집단(그룹3)으로 나누어 진행하였으며, 본 설문 결과 가장 높은 빈도수를 나타낸 의견을 종합해 원어민 영어교사와 비원어민 영어교사의 특징을 도출했으며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우선, 원어민과 비원어민 영어교사의 교수행동별 특징을 살펴보자. 세 그룹 모두가 동의한 의견은 원어민 영어교사는 수업을 흥미롭게 진행하고, 다양한 교수방법을 사용하는 것을 선호하며, 비원어민 영어교사는 학생에게 점수를 줄 때 엄격한 편이고, 시험을 많이 보며 숙제를 많이 내 준다는 것이다. 한편, 상황에 대한 즉각적인 대응능력이 좋다는 것과 학생들의 언어 실력을 잘 평가할 수 있다는 특성에는 원어민, 비원어민 영어교사 모두 본인 그룹이 각각 잘 할 수 있다고 응답하여 차이를 나타냈다. 원어민 영어교사에 대한 교수행동평가를 살펴보면 원어민 영어교사는 모둠학습(group work)이나 짝학습(pair work)을 효율적으로 잘 활용하고 다양한 보충자료를 사용한다는 의견에 평가

를 매우 높게 하였지만, 비원어민 영어교사들은 그에 비해 낮게 평가하였다. 반면에 원어민 영어교사의 문법 설명이 논리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 한국인 교사의 보조 없이 영어 초급자를 가르치기 힘들다는 의견과 수업에서 한국말을 사용할 줄 안다면 가르치기가 수월해질 것이라는 주장에 비원어민 영어교사는 원어민 영어교사에 비해 상대적으로 더욱 많이 동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비원어민 영어교사에 대한 교수행동평가를 살펴보면 학생들에게 영어를 공부하는 학습자로서 모델이 될 수 있다는 의견에 비원어민 영어교사에 비해 원어민 영어교사가 낮게 평가하였고, 전통적인 교수방법을 선호하고 선생님이 주로 말하는 수업을 진행하며, 영어로 대화하는 능력이 부족하다는 평가에 대하여 비원어민 영어교사보다 원어민 영어교사가 더욱 많이 동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 다음으로 원어민과 비원어민 영어교사의 교수 영역별 특징을 살펴보자. 세 그룹 모두 원어민 영어교사는 말하기, 듣기, 발음, 영어권 문화의 영역을, 비원어민 영어교사는 문법 영역을 가르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응답하였다. 읽기와 어휘의 경우에는 원어민, 비원어민 영어교사 모두 각각 본인 그룹이 가르치는 것이 나을 것이라고 응답했으며, 쓰기의 경우에는 비원어민 영어교사들은 원어민, 비원어민 영어교사의 큰 차이 없이 응답하였지만, 원어민 영어교사들은 본인 그룹이 가르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응답하였다. 세 그룹이 원어민 영어교사의 영역별 교수에 대하여 평가한 결과를 살펴보면 가장 잘 가르치는 것은 발음영역이며 그 다음으로 말하기, 영어권 문화, 듣기, 어휘, 쓰기, 읽기, 문법의 순으로 나타났다. 비원어민 영어교사의 영역별 교수에 대한 평가는 가장 잘 가르치는 것은 문법영역이며 그 다음으로 읽기, 어휘, 듣기, 쓰기, 발음, 영어권문화, 말하기의 순으로 나타났다. 한편, 원어민 영어교사가 가장 중점을 두는 영어교수 영역은 말하기, 듣기, 어휘, 읽기인데 비원어민 영어교

사가 가장 중점을 두는 영역은 읽기, 문법, 어휘, 듣기임을 감안하면 쓰기, 영어권 문화, 발음 영역은 원어민, 비원어민 영어교사 모두 크게 중점을 두지 않는 영역으로 나타나 결손이 일어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마지막으로 교수방법별 특징을 살펴보자. 그룹1과 그룹2의 수업 형태는 약 80%가 협동수업을 진행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이상적인 수업형태로는 그룹1의 경우 원어민과 비원어민 영어교사의 완벽한 팀티칭을, 그룹2와 그룹3의 경우에는 단독수업과 부분적인 협동수업의 적절한 배합을 원하는 것으로 응답했다. 현재 사용 중인 교수자료로는 원어민 영어교사는 활동(activities)을 위한 게임이나 노래, 파워포인트를 이용한 프레젠테이션, 실생활 자료, 워크시트(worksheet)를 많이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비원어민 영어교사의 경우에는 교과서의 비중이 높고, 오디오 테이프와 파워포인트를 이용한 프레젠테이션, 워크시트(worksheet)를 자주 이용한다고 응답하였다.

이상으로 살펴본 원어민 영어교사와 비원어민 영어교사의 특징과 기타 설문 문항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제안을 도출해 보고자 한다.

첫째, 원어민 영어교사와 비원어민 영어교사의 특성과 장단점이 반영된 협동수업이 실시되어야 한다. 대다수의 협동수업이 원어민 영어교사 주도의 수업으로 흐르고, 비원어민 영어교사는 학생들의 통제 및 통역에 그치는 보조적인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나 양 집단 모두 만족하는 협동수업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이에 대한 원어민 영어교사들의 주장은 비원어민 영어교사들의 좀 더 적극적인 참여를 바라는 것이었고, 비원어민 영어교사들의 경우에는 원어민 영어교사들이 학생들에게 좀 더 현실적이고 효율적인 수업을 이끌어주길 바라는 것이었다. 예를 들어 듣기 영역의 경우 비원어민 영어교사들은 중학교에서는 원어민 영어교사가, 고등학교에서는 비원어민 영어교사가 가르치는 것

이 효과적이라고 하였는데 그 이유는 입시제도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원어민과 비원어민 영어교사의 장점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수업계획 단계에서 입시 제도를 잘 파악하고 있는 비원어민 영어교사가 교재 및 수업 내용 준비를 하고, 원어민 영어교사가 학생들을 지도하는 등의 협동수업을 진행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쓰기 영역의 경우 두 집단 모두 크게 비중을 두고 있지 않고, 실질적으로 본인들이 잘 가르친다고 평가하지 않았으므로 결손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 일방적으로 한 교사 집단에게 수업을 맡기기 보다는 수업 준비 단계서부터 평가 단계까지 상호 조율을 통하여 차시별로 원어민, 비원어민 영어교사의 주도권을 나누는 것도 효과적일 것으로 기대된다. 말하기 수업의 경우에는 한국 학생들의 특징을 잘 알고 있는 비원어민 영어교사가 원어민 영어교사에게 활동(activities)나 모둠학습(group work) 등의 정보를 제공하고, 현 영어교육제도에서 반드시 익혀야 할 표현이나 교육과정을 공유하여 수업을 조직한다면 현실적으로 학생들에게 많은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요약하자면, 수업의 설계, 진행, 평가 단계 모두에서 협동수업에 걸맞도록 상호협조를 통한 수업을 진행하되, 수업의 설계 단계에서 교육제도와 학생들의 수준을 잘 아는 비원어민 영어교사와 다양한 교수방법과 자료를 보유한 원어민 영어교사가 협동하고, 진행의 단계에서 영역별로 원어민 영어교사와 비원어민 영어교사의 특성을 고려하여 수업을 하며, 평가의 단계에서는 각자 본인이 평가한 학생들의 수준을 공유함으로써 공정한 결과를 이끌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좋은 본보기가 될 것이다.

둘째, 원어민 영어교사와 비원어민 영어교사가 바라는 원어민 영어교사제도가 확립되어야 한다. 원어민 영어교사는 언어의 장벽, 수업 시 학생들 통제, 교육제도에 대한 불충분한 이해를 가장 어려운 점으로 꼽았고, 비원어민 영어교사는 원어민 영어교사의 한국 교육 문화와 교육실정에 대한 충분한 이해가

가장 시급한 부분이라고 응답하였다. 그러므로 원어민 영어교사의 선발에서부터 현장의 의견에 귀 기울여 선발 기준을 세우고, 원어민 영어교사에게 실질적인 한국 교육에 대한 정보를 전달하고 정기적인 교육을 제공해야 한다. 또한 원어민 영어교사 파견 시 원어민 영어교사가 수업에 필요한 수업계획서나 커리큘럼의 모델을 제공하여 수업 진행시 어려움이 없도록 제도적으로 협조해야 할 것이다. 이와 더불어 그룹2와 그룹3의 중점을 두는 영역을 비교했을 때 대부분의 영역이 비슷하게 중점을 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특히 말하기의 경우에는 원어민의 영어교사의 유무에 상관없이 그룹2와 그룹3이 비중을 둔다면 원어민 영어교사가 재직 중이지 않은 그룹3의 학생들은 그 영역에 결손을 가져올 수밖에 없으므로 원어민 영어교사의 배치가 빠른 시일 내로 전 학교로 확대 되어야 할 것이다.

한편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제한점을 갖는다.

첫째, 설문지 자체는 대부분의 문항이 같은 내용이지만, 영어와 한글로 작성되는 과정에서 의미간의 차이점이 발생할 수 있다,

둘째, 원어민 영어교사 설문지 응답자 집단 중 서울의 고등학교에 근무하는 집단의 표본이 빠져 있으므로 지역적인 차이로 인한 결론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

셋째, 설문의 문항 제작 시 제시한 보기 중 제일 많이 응답한 수만큼 기타 의견이 도출되는 경우가 발생하여 응답자에게 보기에 대한 충분한 선택의 폭을 제공하지 못한 가능성이 존재한다.

넷째, 원어민 영어교사 설문지 중 이메일을 통해 회수한 설문지는 철저히 보안이 보장된 상태였지만, 우편을 통해 회수한 설문지는 비원어민 영어교사들의 설문과 같이 회수되어 보안이 완벽하게 이루어졌다고는 보기 어렵다.

참고 문헌

- 교육부. (1997). 1997년도 원어민 영어보조교사 연구에 대한 평가 보고서 자료.
- 교육인적자원부 학교정책추진단. (2006). 영어교육혁신방안정책참고자료.
- 길인숙. (2004). 원어민과의 협동수업이 학습자의 정의적 요인에 미치는 영향. *영미어문학연구*, 20(2), 35-54.
- 김신혜, 광병권. (2002). 원어민 교사 프로그램이 고등학교 영어교육에 미치는 영향. *외국어교육*, 9(3), 211-241.
- 김신혜. (2005). 비원어민 교사들의 영어교수학습에 대한 인식. *영어학연구*, 20(2005), 21-47.
- 나은진. (1997). 의사소통 능력 신장을 위한 원어민 보조 교사와의 역할 분담 식 수업모델 연구. *영어교육연구*, 6, 165-172.
- 노승빈. (2006). A Research on Methods for English Native-Speakers' Teaching in Korean EFL Classes. *영어어문교육*, 12(3), 51-78.
- 박기화. (1996). 원어민 영어교사 활용을 위한 제언. *외국어교육*, 3(1), 29-42.

- 박약우. (2006). 원어민 교사와 내국인 교사의 역할. *한국초등영어교육학회회보*, 20, 5-10.
- 박용주. (1998). *원어민 영어교사를 활용한 협동수업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 논문, 전남대학교 교육대학원
- 박정숙, 김대진. (2000). 원어민 영어교사 팀티칭의 교육효과: 대체적 수업모형과의 비교 실험. *외국어교육*, 7(1), 97-121.
- 배두분. (1990). *영어교육학*. 서울: 한신문화사.
- 정길정, 민찬규, 박매란. (1999). 원어민 영어 교사의 효과적 활용을 위한 초·중등학교 영어 협동수업 현황 조사 연구. *영어교육*, 54(2), 201-227.
- Braine, G. (1999). *Non-Native Educators in English Language Teaching*. Mahwah, NJ: Lawrence Erlbaum.
- Braine, G. (2005). A History of Research on Non-Native Speaker English Teachers. In Llurda E. (ed.), *Non-Native Language Teachers: Perceptions, Challenges and Contributions to the Profession*(pp.13-24). Springer.
- Choe, H. (2005). *Negotiation of Status of Korean Nonnative English-Speaking Teachers*. Doctoral Dissertation, Indiana University.

EPIK. (1997). *English Program in Korea*. Seoul Ministry of Education.

Llurda, E. (2005). Looking at the Perceptions, Challenges, and Contributions... or the Importance of Being a non-Native Teacher. In Llurda E. (ed.), *Non-Native Language Teachers: Perceptions, Challenges and Contributions to the Profession*(pp.13-24). Springer.

Maroney, S. (1995). *Team Teaching*. [On-line].

Available: <http://www.wiu.edu/users/mfsam1/TeamTchg.html>

Medyes, P. (1994). *The Non-Native Teacher*. London: Macmillan Publishers.

Medyes, P. (2001). When a Teacher is a Non-Native Speaker. In Celcia, M.-Murcia (ed.), *Teaching English as a Second or Foreign Language* (pp.429-442). Heinle&Heinle.

Quinn, S. & Kanter, S. (1984). *Team Teaching: An Alternative to Lecture Fatigue*. *Innovation Abstracts*, Eric Document Reproductive Service No. ED 251 159. Available: <http://www.ucalgary.ca/~egallery/goetz.html>

Rebecca, B. & Bridget, H. (2001). Team Teaching Tips for Foreign Language Teachers. [On-line]. *The Internet TESL Journal*, 7(10).

Available: <http://iteslj.org/Techniques/Benoit-TeamTeaching.html>.

ABSTRACT

Differences between 13) NESTs & non-NESTs' Perceptions

- centering around teaching behaviors,
teaching categories, teaching methods -

Lee, Yuri
Dept. of English Education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Sungshin Women's Univ.

Since EPIK(English Program in Korea) started in 1995, English classes with NEST have been put into effect in Korean public education. Without sufficient proof of EPIK's viability, however, many unexpected problems have turned up; inefficient recruitment and management of NESTs, controversies about unqualified NESTs at schools, and the absence of a specific sample curriculum for team-teaching by NESTs and non-NESTs.

This study was designed to compare NESTs with non-NESTs' overall perceptions regarding teaching behaviors, teaching categories, and teaching methods in order to enable NESTs and non-NESTs to design and enact more efficient English classes. It recommends methods for efficient team-teaching

13) NESTs: Native English Speaking Teachers
Non-NESTs: Non-Native English Speaking Teachers

that reflect the characteristics of both NESTs and non-NESTs, plus the study aims to provide EPIK with a deeper understanding of NESTs' merits and demerits, therefore, hopefully, offering keys to improving English education in Korea.

For this purpose, 76 NESTs(Group 1) and 137 non-NESTs teaching at middle schools and high schools mainly in Seoul and Gyeong-gi Province were selected for the survey. Non-NESTs were divided and analyzed as two groups; one working at schools with NESTs(Group2) and the other working at schools without NESTs(Group3).

The result of this study is as follows;

First, some representative characteristics of teaching behaviors about NESTs and non-NESTs' were found. Out of 11 characteristics of general teaching behaviors' statements, the following five statements were agreed upon by all three groups - NESTs run interesting classes; NESTs prefer using a variety of teaching methods; non-NESTs stick rigidly to their lesson plans; non-NESTs give a lot of tests; non-NESTs assign a lot of homework. Also, out of 16 characteristics of NESTs and non-NESTs' teaching behavior, most statements were agreed on by over half of the participants from all three groups. However, the following four statements were answered differently by Group 1 and the other groups - NESTs are not good at teaching beginner level classes without help from Korean English teachers; NESTs' lessons are somewhat inapplicable to the Korean school exams; non-NESTs can explain English structure and grammar well, but speak English poorly; non-NESTs prefer traditional forms of teaching.

Second, when teaching English, NESTs were expected to teach speaking, listening, pronunciation, and the culture of English-speaking countries better,

while non-NESTs were expected to teach grammar better. In addition, non-NESTs were expected to teach listening effectively, especially at high schools, plus be better at teaching reading and vocabulary.

Last, when surveying teaching methods, most Group 1 teachers wanted to teach English with non-NESTs using full-time team-teaching, but Group 2 & Group 3 preferred part-time team-teaching with NESTs. In addition, the teaching materials non-NESTs use are mainly textbooks and audio tapes, which showed less variety than that used by NESTs.

According to the results of this study, the following recommendations can be made:

First of all, effective team-teaching, one that reflects the characteristics of both NESTs and non-NESTs, should be conducted based on mutual understanding. For example, at the class design step, non-NESTs, who grasp the Korean education curriculum and Korean students better, and NESTs, who possess various teaching methods and materials, should bring both their strengths to the class syllabus and design. During the class, NESTs and non-NESTs should decide who will teach each category based on their respective merits and demerits. At the assessment step, NESTs and non-NESTs should share their opinions to garner fairer ratings and evaluations.

Plus, EPIK should be changed to reflect the experience, knowledge and desires of both NESTs and non-NESTs. From recruitment to follow-up training, administrators should pay attention to incumbent English teachers and set up a standardized model. In addition, when assigning NESTs to schools, curriculum and lesson plans for NESTs should be provided in order to reduce the difficulties in teaching and coordination.

원어민 영어교사와 비원어민 영어교사의 인식비교를 위한 설문조사

-교수행동, 교수영역 및 교수방법을 중심으로-

▲ 본 설문지는 원어민 영어교사(Native English-Speaking Teacher)와 비원어민영어 교사(non-Native English-Speaking Teacher)의 영어교수에 대한 관점 비교 연구를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 본 설문지에서 비원어민 영어교사(non-Native English-Speaking Teacher)란 우리나라에서 한국말을 모국어로 사용하며 영어를 가르치는 사람을 뜻합니다. 다시 말해 한국인 영어교사입니다. 원어민 영어교사(Native English-Speaking Teacher)는 미국, 캐나다, 호주, 영국 등 영어권 국가 출신으로 모국어로 영어를 사용하면서 영어를 가르치는 사람을 뜻합니다.

▲ 본 설문지는 학문적 목적 이외에는 절대로 사용되지 않을 것을 약속드립니다. 설문내용은 선택형과 서술형 문항으로 진행되오니 설문 내용을 읽고 해당되는 문항에 √표 혹은 서술하시면 됩니다.

▲ 연구 내용과 관련하여 질문이 있으시거나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시면 성의껏 답해 드리겠습니다. 바쁘신 중에 시간을 할애하여 설문에 참여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2007년 3월 7일
성신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영어교육전공 이 유 리
yurilee99@naver.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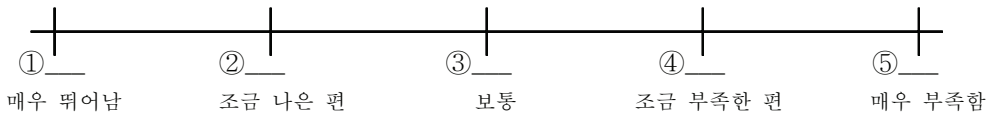
※ 해당되는 사항에 V표 해주십시오. 해당되는 사항이 없으시면 “기타”란에 직접 작성해 주십시오.

성 별	①__남자		②__여자	
연령대	①__20대	②__30대	③__40대	④__50대 이상
최종 학력	①__대학교 졸업 ②__대학원 재학/수료/졸업 ③__박사과정이상			
전공 분야	학부	①__영어, 영문관련 ③__교육관련	②__영어 교육관련 ④__기타 ()	
	대학원	①__영어, 영문관련 ③__교육관련	②__영어 교육관련 ④__기타 ()	
	박사	①__영어, 영문관련 ③__교육관련	②__영어 교육관련 ④__기타 ()	
교직 경력	중학교	①__5년 미만 ③__10년 이상~15년 미만	②__5년 이상~10년 미만 ④__15년 이상	
	고등학교	①__5년 미만 ③__10년 이상~15년 미만	②__5년 이상~10년 미만 ④__15년 이상	
현재 근무지	①__ 중학교 () 소개		*시, 도 단위만 기록해주세요	
	②__ 고등학교 () 소개			

A. 영어권 국가에서 어학연수, 유학 등 체류 경험이 있으십니까? (복수 응답 가능)

- ①__어학연수 ②__유학 ③__여행 ④__근무 ⑤__없음

B. 본인의 영어실력을 한국인 동료 교사와 비교하였을 때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C. 현재 근무하고 있는 학교에 원어민 영어교사가 재직하고 있습니까?

- ①__있다 (명) ②__없다

1. 다음은 원어민 영어교사와 비원어민(한국인) 영어교사에 대한 특징을 나열한 것입니다. **본인이 평소에 가지고 있던 생각에 비추어 보았을 때** 전형적인 두 집단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각각의 문장이 완결될 수 있도록 “원어민” 혹은 “비원어민” 중에서 한 단어를 골라 표시해 주세요. (단, 만약 두 집단 모두라고 생각하시면 두 단어에 모두 표시해 주세요.)

- 1) (원어민, 비원어민) 영어교사는 수업 준비를 위해 시간을 많이 투자한다.
- 2) (원어민, 비원어민) 영어교사는 수업지도안을 엄수한다.
- 3) (원어민, 비원어민) 영어교사는 학생에게 점수를 줄 때 엄격한 편이다.
- 4) (원어민, 비원어민) 영어교사는 시험을 많이 본다.
- 5) (원어민, 비원어민) 영어교사는 상황에 대한 즉각적인 대응능력이 좋다.
- 6) (원어민, 비원어민) 영어교사는 다양한 교수방법을 사용하는 것을 선호한다.
- 7) (원어민, 비원어민) 영어교사는 계속해서 틀린 곳을 지적하는 경향이 있다.
- 8) (원어민, 비원어민) 영어교사는 수업을 흥미롭게 진행한다.
- 9) (원어민, 비원어민) 영어교사는 숙제를 많이 내준다.
- 10) (원어민, 비원어민) 영어교사는 학생들의 언어 실력을 잘 평가할 수 있다.
- 11) (원어민, 비원어민) 영어교사는 학생들과의 관계가 돈독하다.

2. 원어민 영어교사와 비원어민(한국인) 영어교사가 다음의 영역을 가르칠 때 누가 가르치는 것이 더욱 효율적일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각 영역에 대하여 두 집단 중 “한 곳에만” √표 해주십시오.

	원어민 영어교사	비원어민 영어교사
1) 말하기	()	()
2) 듣기	()	()
3) 읽기	()	()
4) 쓰기	()	()
5) 문법	()	()
6) 어휘	()	()
7) 발음	()	()
8) 영어권 문화	()	()

3. 한국에서 근무하는 원어민 영어교사에 대한 직간접 경험에 비추어보았을 때, 다음의 원어민 영어교사를 나타낸 문장에 어느 정도 동의하십니까? 오른쪽에 나와 있는 척도에 각각 표시해 주십시오. (5: 매우 그렇다 4: 그렇다 3: 보통이다 2: 그렇지 않다 1: 매우 그렇지 않다)

5 4 3 2 1

- 1) 원어민 교사는 영어로 '대화'는 할 수 있지만, 영어 문법을 논리적으로 '설명'하기에는 곤란함을 겪는다.
- 2) 원어민 교사는 다양한 보충자료를 사용한다.
- 3) 원어민 교사가 한국인 교사의 보조 없이 영어 초급자(beginner)를 가르치기는 힘들다.
- 4) 원어민 교사의 수업은 우리나라 학교 시험으로 평가하기에는 잘 맞지 않는 부분이 있다.
- 5) 원어민 교사는 학생들이 편한 분위기 속에서 학습하도록 덜 격식화된(casual) 수업을 선호한다.
- 6) 원어민 교사는 모둠학습(group work)이나 짝학습(pair work)을 효율적으로 잘 활용한다.
- 7) 원어민 교사는 영어권 문화에 대하여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다.
- 8) 원어민 교사가 수업에서 한국말을 사용할 줄 안다면 더욱 가르치기가 수월해질 것이다.

4. 원어민 영어교사들의 영어교수실력을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각 영역별로 V표 해 주십시오.

	매우 잘함	잘하는 편	보통	못하는 편	매우 못함
1) 말하기	+	+	+	+	+
2) 듣기	+	+	+	+	+
3) 읽기	+	+	+	+	+
4) 쓰기	+	+	+	+	+
5) 문법	+	+	+	+	+
6) 어휘	+	+	+	+	+
7) 발음	+	+	+	+	+
8) 영어권 문화	+	+	+	+	+

5. 비원어민 영어교사로서 본인을 바라보았을 때 다음 문장에 어느 정도 동의 하십니까? 오른쪽에 나와 있는 척도에 각각 표시해 주십시오.

(5: 매우 그렇다 4: 그렇다 3: 보통이다 2: 그렇지 않다 1: 매우 그렇지 않다)

	5	4	3	2	1
1) 나는 영어 문법을 “설명”할 수는 있지만 영어로 “대화”하는 것은 부족하다.					
2) 나는 학생들의 영어 학습에 대한 실질적인 욕구와 목표에 대해 잘 이해하고 반응한다.					
3) 나는 좀 더 실제 상황에 잘 적용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authentic)자료를 통해 영어를 가르칠 필요가 있다.					
4) 나는 학생들이 겪을 영어 학습상의 어려움에 대하여 예상하고, 미리 방지해 줄 수 있다.					
5) 나는 수업시간에 학생들이 말하기를 장려하기 보다는 주로 내가 대부분의 시간을 말한다.					
6) 나는 언어 학습전략에 대하여 효율적으로 가르칠 수 있다.					
7) 나는 다른 방법에 비해 전통적인 교수방법을 선호한다.					
8) 나는 학생들에게 영어를 공부하는 학습자로서의 모델이 될 수 있다.					

6. 비원어민 영어교사로서 본인의 영어교수 실력을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각 영역별로 V표 해주십시오.

	매우 잘함	잘하는 편	보통	못하는 편	매우 못함
1) 말하기	+	+	+	+	+
2) 듣기	+	+	+	+	+
3) 읽기	+	+	+	+	+
4) 쓰기	+	+	+	+	+
5) 문법	+	+	+	+	+
6) 어휘	+	+	+	+	+
7) 발음	+	+	+	+	+
8) 영어권 문화	+	+	+	+	+

7. 다음의 각 영역 중에서 본인이 영어를 가르칠 때 가장 중점을 두는 영역 세 가지를 골라 주십시오. (, ,)

a. Speaking	b. Listening
c. Reading	d. Writing
e. Grammar	f. Vocabulary
g. Pronunciation	h. English speaking-countries' culture

8. 지금 현재 본인의 영어교수는 어떤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 ①__단독 수업
- ②__원어민 영어교사와의 협동수업(Team-Teaching)
- ③__부분적인 원어민 영어교사와의 협동수업(Team-Teaching)

→8번의 보기에서 어떤 형태의 수업이 가장 효과적인 것으로 생각하십니까? ()

9. 지금 본인은 어떤 종류의 수업 자료를 사용하십니까? (복수 응답 가능)

- ①__교과서
- ②__실제 생활에서 쓰이는 자료들을 이용 (예: 요리의 recipe, 쇼핑몰의 receipt)
- ③__파워포인트를 이용한 프레젠테이션
- ④__오디오 테이프
- ⑤__기타

10. 본인의 영어교수 및 영어실력 향상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복수 응답 가능)

- ①__사설 학원
- ②__온라인 교육
- ③__책, 신문, 영화 등의 콘텐츠를 이용한 독학
- ④__없음
- ⑤__기타

14. 본인은 현재 비원어민(한국인) 영어교사로서 영어를 가르치는 것에 만족하십니까?

①____ ②____ ③____ ④____ ⑤____
매우 만족한다. 만족한다. 보통이다 불만족 한다. 매우 불만족 한다.

15. 원어민 영어교사가 한국에서 영어를 더욱 잘 가르치기 위하여 어떤 점을 노력해야 하는지 자유롭게 기술하여 주십시오.

16. 현 한국 영어 교육에 대하여 제안하고 싶은 점이 있으시면 자유롭게 기술하여 주십시오.

17. 영어교과를 가르치는 한국인 교사로서 본 설문과 관련하여 첨가하고 싶은 의견이 있으시면 자유롭게 기술해 주십시오.

- 설문에 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

부록2
(원어민 영어교사용 설문지)

Dear Participant,

The purpose of this survey is to collect information on the perspectives of **Native English-Speaking Teachers(NEST)** and **non-Native English-Speaking Teachers(non-NEST)** in regards to teaching English. Please fill out the questionnaire by marking the appropriate answers and completing the questions on the final page. It will not take more than 10 minutes. The questionnaire is anonymous and all data will be handled confidentially. The results of the survey can be provided upon request.

Thank you for your help,

Yuri Lee
yurilee99@naver.com

● Please respond to the following questions.

1. Considering your immediate reaction and given that these are generalizations, which statements are typical/true of **Native English-Speaking Teachers(NEST)** and **non-Native English-Speaking Teachers(non-NEST)** respectively? Please ✓ check “Native,” “Non-native,” or both.

	NEST	non-NEST	
1)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put a lot of time into class preparation.
2)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stick rigidly to their lesson plans.
3)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are harsh in their marking.
4)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give a lot of tests.
5)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are happy to improvise.
6)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prefer using a variety of teaching methods.
7)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correct errors consistently.
8)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run interesting classes.
9)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assign a lot of homework.
10)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assess students' language knowledge realistically.
11)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have a close relationship with their students.

2. When NEST and non-NEST teach English, who do you think is better in the following categories, NEST or non-NEST? (Please check one of the choices)

	NEST	non-NEST
1) Speaking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2) Listening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3) Reading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4) Writing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5) Grammar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6) Vocabulary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7) Pronunciation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8) English speaking -countries' culture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3. Please indicate the extent to which you agree or disagree with the statements that describe your characteristics as a Native English-Speaking Teacher.

SA: Strongly Agree A: Agree N: Neutral D: Disagree SD: Strongly Disagree

	SA	A	N	D	SD
1) I can SPEAK, but sometimes I don't know how to EXPLAIN English grammar logically.					
2) I use various supplementary materials.					
3) I am not good at teaching beginner level classes without help from Korean English teachers.					
4) I think my lessons are not somewhat applicable to the Korean school exams.					
5) I prefer casual-style classes so that students can be more comfortable.					
6) I use group or pair work to make lessons more effective.					
7) I provide information about the culture of English-speaking countries well.					
8) I believe that if I were to speak Korean in class, teaching would be easier.					

4. Of the following categories, how would you rate your ability in "Teaching English?" (Please check one of the choices)

	Very Good	Good	Fair	Poor	Very Poor
1) Speaking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2) Listening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3) Reading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4) Writing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5) Grammar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6) Vocabulary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7) Pronunciation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8) English speaking -countries' culture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5. Please indicate the extent to which you agree or disagree with the statements that describe the characteristics of non-Native English-Speaking Teachers (non-NEST) in Korea.

SA: Strongly Agree A: Agree N: Neutral D: Disagree SD: Strongly Disagree

	SA	A	N	D	SD
1) They can EXPLAIN English structure and grammar well, but SPEAK English poorly.					
2) They understand and are responsive to the students' real needs and aims in learning English.					
3) Their classes should be taught in real-world settings using authentic language and materials. (i.e. recipes for cooking, application forms, etc)					
4) They can better anticipate and counteract language difficulties students will have.					
5) They speak most of the time rather than encouraging students to speak during the lesson.					
6) They can teach language-LEARNING strategies effectively.					
7) They prefer traditional forms of teaching.					
8) They provide a better language LEARNER model.					

6. Of the following categories, how would you rate Korean English teachers' ability of "Teaching English" as non-NEST? (Please check one of the choices)

	Very Good	Good	Fair	Poor	Very Poor
1) Speaking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2) Listening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3) Reading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4) Writing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5) Grammar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6) Vocabulary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7) Pronunciation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8) English speaking -countries' culture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7. Of the categories, please write the most important three things in teaching English according to what you believe should be the main focus of teaching English. (, ,)

a. Speaking	b. Listening	c. Reading
d. Writing	e. Grammar	f. Vocabulary
g. Pronunciation	h. English speaking-countries' culture	

8. What kind of teaching method are you using now?

- a. ___full-time solo teaching
- b. ___full-time team-teaching with Korean English teachers
- c. ___combination of solo teaching & team-teaching with Korean English teachers

→ In reference to question #8,
what do you think is the most effective? (a, b, c?)

9. What kind of teaching materials do you currently use?

(multiple responses possible)

- a. ___textbook
- b. ___using a variety of authentic, tangible materials
(i.e. recipes for cooking, application forms, receipts, etc)
- c. ___making a presentation with Power Point Files.
- d. ___using audio tapes
- e. ___other

10. What do you do to improve your English language and teaching skills?

(multiple responses possibl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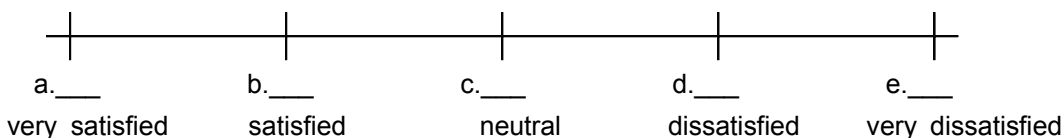
- a. ___ study at graduate school
- b. ___ using online (i.e. Davesesl.com)
- c. ___ using books
- d. ___nothing
- e. ___other

11. As a Native English-Speaking Teacher (NEST) working in a Korean school, what is the most difficult thing in teaching English realistically?

(multiple responses possible)

- a. ___cultural misunderstanding
- b. ___language barrier
- c. ___non-cooperation of other teachers and staff
- d. ___miscellaneous duties
- e. ___etc

12. How satisfied are you with teaching English as a NEST in Korea?



13. What suggestions for improving their teaching ability would you make to non-Native English-Speaking Teachers (non-Nest) in Korea?

14. What suggestions would you make regarding English education in Korea?

15. If you have any other comments about this topic as a NEST, please feel free to give your opinion.

-Thank you for your help -